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로 복되게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뜻을 좇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7절b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0월 17일 (토) 제 1798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전통적 결혼수호 나선 연방대법관들의 반격!

NPR, 보수 연방대법관들 동성결혼 합헌결정 뒤집으려는 '공격' 재개 전격 보도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헌화한 2015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격'이 또 다시 시작됐다.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켄터키 주 로완카운티의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신청을 기각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데이비스는 당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

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인물이다. 그는 끝까지 업무를 거부하다가 한 때 구속 수감됐고,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기독교 및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도 불사한 여인'이라는 식으로 묘사된 것이다(Justices Thomas, Alito Blast Supreme Court Decision On Same-Sex Marriage Rights).

동성커플 결혼증명서 발급거부 상고신청 기각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당한 동성커플들은 소송을 냈고, 데이비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연방대법원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5년, 킴 데이비스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어겨가면서 결혼증명서 발급을 계속 거부하다가 법정 구속돼 5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사진은 그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바깥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그러나 정작 눈에 띈 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연방대법관 2명이 낸 반대의견이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는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576 U.S. 644)' 사건으로 알려진 2015년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 결과, 법적으로 동성커플의 결혼권리를 인정할 판결이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버거펠 판결과 이것이 영향을 끼친 다른 차별금지법과 충돌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참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들의 논리는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자유를 경시한 반면, 헌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음에도 수정헌법 제14조를 적용해 동성커플의 결혼권리를 인정했다는 것.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버거펠 결정에서 종교를 경시한 연방대법원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가 데이비스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버거펠 판결 때문에 (동성)결혼을 우려하는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은

그는 "동성결혼 인정 여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되고 채택됐다면 다른 얘기가 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명시되지 않은 (동성결혼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만들어내고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소극적으로 해석함으

로써 그 선택을 사회에 강제해 종교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저버린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15년의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 종교적 지지자들을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종교적 자유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쉽게 무시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적 자유보다 "(동성결혼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우대"하기로 한 법원의 "비민주적"인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자초한 문제이자 오직 연방대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의 역사적인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찬성 5 대 반대 4'로 2015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찬성 쪽에 있던 연방대법관 다섯 명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건 3명 뿐이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은퇴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달 별세했다. (3면으로 계속)



카메라 너머 교인에게 복음 선포한다!

Churchleaders.com, 레볼루션교회 조수아 레이 목사에게 듣는 영상설교 7가지 비결 소개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여러분은 모든 목회를 한 공간 안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회중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들의 바다랑거리를 통해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나, 또 여러분이 너무 길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회중들과 잘 연결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고, 이제 여러분은 텅 빈 공간에서 카메라를 향해 설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역에서 지금껏 '관계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이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잠옷을 입고 앉아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들과 잘 연결돼 있고 그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많은 목회자에게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지만, 치명타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 카메라를 향해 설교할 때의 일곱 가지 비결은 다음과 같다(7 Secrets When You Preach to a Camera).

1. 준비하라

이것은 코로나 시대의 설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설교에도 적용되는 팁이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청중들이, 집에 앉아서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실내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사람들과 주고받는 교감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좀 더 쉽고 잘 된다. 같은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는 청중들과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욱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비어있는 예배당에 서서 설교를 할 때는 청중들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노기승 목사 4면



팬데믹 시대의 선교... 한영호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상급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지우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org |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성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학위과정: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신교학 박사(D.Miss),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신교학)석사(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MA CC), 신학사(BA), 기독교 상담학 학사(BA CC) 이벤트1. 11월 Early Bird 장학금 이벤트2. 화상입학설명회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발행인 칼럼 ●

보이지 않는 세계



김성국 목사
(켄츠장로교회 담임)

눈에 보이던 것이 곧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다민족을 위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기초공사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다. 물론 팬데믹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초공사 시간이 꽤 걸렸다. 앞으로는 볼 수 없을 기초공사 위에 이제 곧 선명히 보일 성전이 올라갈 것이다. 1931년에 완공된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건축가에게 사람들이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가의 대답은 간결했다. “기초공사였습니다.” 전체 건축 중에 가장 힘들었다는 그 견고한 기초 위에 102층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지금도 늠름히 서있다. 오래 전 한국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의 조사반에 의하면 성수대교의 다리 기둥이 물위에 동동 떠다니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건물 아래 있는 기초공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요3:8).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의 존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지난여름 한 동안 고생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에어컨이 안 돌아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차를 몰고 도로를 다니기도 어려웠다. 큰 나무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에 강풍이 불어와 일어난 일들이었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도 같다. 그러나 그 가시(可視)적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둬주게 해주고 한없는 평안과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 냉랭한 자들을 뜨겁게 해주고 두려워하는 자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신다. 뭔가 내 삶에 뼈그릭 소리가 나고 황량(荒涼)함이 있다면 필시(必是) 성령님의 부재 때문이리라.

영원한 아버지 집도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의 실체를 여러 번 말씀하셨고 지금 거기에 계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어떠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이는 하늘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다. 렌트비 걱정, 리모델링 필요가 영원히 없을 아버지 집이 있다. 한국에서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 실제 아파트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모델하우스는 있었다. 복부인(福婦人)은 아니었지만 나그네 그 안이 공급했다. 두어 번 정도 들어가 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20여 평에서 40여 평 정도였을 텐데 너무 좋았고 언제든 꼭 그런 집에서 살고 싶었다. 지금 이 땅에 나를 비롯하여 전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살아가는 전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교회를 보면 확실히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음을 알게 되고 머잖아 그 집에서 영원히 살기대를 갖게 된다.

어리석은 인생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존재의 전부인 줄 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가련한 일이 없다.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가련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밝히 보고 살자.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외친 바울처럼.

에너지전환시대, 새로운 혁신강국이 뜬다!

WSJ, 풀리처상 수상자 대니얼 예진의 지구촌 신에너지 선점위한 강국간 충돌유형 보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에서 중국과 같은 혁신 주도국으로 에너지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어쩌면 미국이 에너지 혁신 강국이 될지도 모른다. 대니얼 예진(Daniel Yergin)은 2년 전 실리콘 벨리를 방문하고 워싱턴DC에 들른 중동 석유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만났다. 그는 유가 전망이나 이란의 정세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맛닥뜨린 광경에 관해 놀란 목소리로 설명했다. “테슬라 전기차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어. 도로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었죠.” 그가 본 광경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일부였다. 향

후 수십 년 안에 석유, 천연가스, 석탄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권력 지형을 뒤엎을 것이다. 미래 에너지 패권 전쟁으로 중국이 급부상하는 반면, 석유를 수출하는 러시아와 중동 산유국의 힘은 쪼그라들 것이다. 미국은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 불확실하다(The New Geopolitics of Energy: Power is shifting from longtime oil giants like Russia and Saudi Arabia to innovators like China-and maybe the U.S.).

에너지 전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 기술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석유와 가스 산업이 창출하는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2015년 195개국에 모여 지구의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상승폭을 1.5도에 가깝게 제한하겠다는 파리협약에 합의했다. “에너지 전환”은 파리협약 이후 에너지의 미래 방향을 상징하는 구호가 됐다.

를에 동참하고 있다. 석유, 가스, 전력회사들이 “탄소배출제로” 선언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으며, 주요 연기금은 “파리목표”를 투자평가기준에

불렀다. 하지만 석탄이 목재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에너지원이 되기까지 200여 년이 걸렸다. 비슷한 예로, 석유는 1859년 서

현재 세계는 전체 에너지의 8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막대한 정부 부채로 인해 향후 몇 년간 에너지 전환에 투입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이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시기가 어쨌든 기후변화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전 세계는 연젠가 저탄소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과연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힘의 균형을 어디로 옮기게 될까?

중국은 미래 에너지 전환의 최대수혜국이 될 것이다. 비록 중국이 세계 5위의 산유



전기차 배터리 필수원료 리튬 시장 지배한 중국이 최대수혜자 러시아, 중동산유국 피해...미국, 에너지기술개발 경쟁력 세계적

파리협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 영국, 일본은 이에 동의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도 미국의 “탄소 순 배출 제로”를 약속했다. 지난 7월 바이든은 2조 달러 규모의 “공정한 청정에너지 미래” 정책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전력분야의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2019년 미국 전체 에너지의 80%를 차지)을 태양광과 풍력(2019년 미국 에너지의 3.7%)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이

포함했다. 은행은 전통적인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규모를 줄였고, 자동차 제조사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간 에너지 혁명적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무 펄프에서 석탄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에너지 혁명의 결정적인 순간은 1709년 1월이었다. 영국의 금속 노동자였던 아브라함 다비(Abraham Darby)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 방법을 “더 효과적으로 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부 펜실베이니아에서 발견됐지만 석탄을 넘어 세계 1위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은 것은 100여 년이 지난 1960년대였다.

물론, 과거 석탄, 석유로의 전환기에는 오늘날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없었다. 정부의 정책, 막대한 자금, 과감한 추진력, 첨단 기술과 같은 요인들이다. 하지만 이런 요소가 있더라도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87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경제를 떠받쳐온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량을 자랑하는 석유강국이지만, 국내석유생산량은 세계 2위의 중국 경제규모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이 석유수요의 약 75%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석유수입국이 된 이유다.

한국전쟁 이후 중국은 석유분야의 높은 해외존도를 주요한 전략적 약점으로 꼽았다. 중국의 이러한 약점을 “말라카 딜레마”로 부른다. 말라카는 싱가포르를 지나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좁은 해협이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주요선이 지나가는 곳이다.

(4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가주 장의사 직원 구함
1. 안수받은 목사님1명과 사무실 여직원
2. 한국어, 영어 능통하신분
3. 컴퓨터 하실수 있는분
562)622-939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식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의원명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시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대흥장로교회는 미국 Los Angeles지역에 위치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77년 창립한 이후 43년 동안 분열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한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님이 병환으로 은퇴하셨기에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회경력: 5년 이상 (부목사 포함)
2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 출 서 류 : 이력서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자기소개서 (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성장배경/가족소개와 가족사진)
추천인 3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출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제 출 마감일 : 2020년 12월 15일

제 출 처 : application.dkpc@gmail.com
대흥 장로교회 (DaeHue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기 타 : 서류는 e-mail로만 접수합니다 (Word, PDF)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모든 문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청빙
리마한인연합교회는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에 세워진 한인연합교회입니다. 본교회는 1989년 12월에 장로교 전통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현재는 독립교회입니다. 25년간 시무하셨던 담임목사의 은퇴로 말미암아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자 격 : 1) 장로교(합동교단 혹은 통합교단)소속의 목사
2)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의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부목사 포함)
3) 나이: 만 45세 ~ 만 55세(1965년생 ~ 1975년생)
4) 해외 체류 및 비자 획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 출 서 류 : 1) 이력서 (3개월 이내의 반명함 사진, 가족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배경/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 및 가족 소개서
3) 목회계획서 (목회비전/목회철학 포함)
4) 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학위 증명서 각 1부
5) 목사 안수 증명서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7) 최근 설교 동영상 2회분

마감날짜 : 2020년 11월 14일(토)까지

제 출 처 : abcsong47@gmail.com (청빙위원장 송병창 장로)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하며, 서류 심사후 개별 통지합니다.
*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후 건강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페루) 리마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전통적 결혼수호 나선 연방대법관들의 반격

(1면에서 계속)
성소수자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미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알폰소 데이비드 회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아침, 토마스 대법관과 알리토 대법관이 성소수자 권리와 동성결혼 권리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극우 반

평등권 극단주의자" 코니 배럿이 합류할 경우, '6 대 3'으로 한층 보수 성향으로 기울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 커플의 권리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CNN, Same-sex marriage at risk as Supreme Court gets more conservative).
미국 자유 인권 연맹(ACLU)에서 'LGBT & HIV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에섹스는 "오버거펠의 역사적인 결정이 나온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두 대

법관들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다른 커플의 결혼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오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의 원고였던 짐 오버거펠은 "연방대법원의 알리토 대법관, 토마스 대법관과 다른 법관들이 이 결정이 가져다 준(성소수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빼앗으려 할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곳곳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

을 반대할 권리'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동성커플의 양부모 등록을 금지한 가톨릭 단체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이 단체를 입양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필라델피아 시 정부의 소송건을 다음달 4일에 심리할 예정이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적인 연방대법관들의 동성결혼 합헌 반대는 패배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지, 미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메라 너머 교인에게 복음 선포한다!

(1면에서 계속)
우리가 조금 뒤에 더 살펴볼 것인데, 카메라를 향해 설교할 때는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문을 너무 자주 내려다보면 안 된다. 설교문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최대한 많이 시선을 마주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설교가 평상시보다 더 짧고 간결해야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3. 평상시보다 더 짧게 설교하라
나는 35분 전후로 설교했었는데, 지금은 20-25분 정도로 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시간이 지나면 목회자들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들었다. 이는 60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을 그려보는 것이다. 심지어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고 있고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돕는다.
나는 예배당에 교인들의 사진을 걸어놓는 몇몇 목회자를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그려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

6. 몸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연기를 하는 배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카메라를 향해 설교할 때 사람들과 직접 대면으로 할 때는 하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움직임을 더욱 과장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예배(화면)를 끄는 것을 의미한다.
4. 사람들을 그려보라
내가 카메라에 설교할 때마다 시도하는 것은 내가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즉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

중요하다(매우)
대면으로 할 때보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교의 중심 포인트, 어려운 부분, 혹은 목회적인 것을 전달할 때 더욱 그렇다. 여러분이 카메라를 너무 많이 쳐다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카메라 너머의 청중을 더욱 똑바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하게 느

7. 여러분 자신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라. 카메라를 향해 설교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전히 목회자다. 교인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TV/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설교하라. 만약 여러분이 설교할 때 설교단 위에 선다면 그렇게 하라. 만약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한다면 그렇게 하라. 설교하다가 많이 흥분한다면 그렇게 하라. 단순히 교인들의 목회자가 되어라.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번 시기에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영상을 보았는데 모두 얼마나 다르게 설교하는가였다. 다양한 모든 종류의 함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교회에 보내셨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되어라!



시론

생명이야기를 해야 하는 계절



이동진 목사
(성화장교회)

계절은 가을로 들어섰다. 빠르면서도 아주 느리게 지나가는 한 해를 되짚어보니 인류가 살아온 그 어떤 해와 다름이 없는 이야기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다. 힘이 말하는 시대도 있었고, 지성이 말하는 시대도 있었다. 불의가 다스리는 시대도 있었고, 의로운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도 있었다. 전쟁과 질병의 두려움으로 덮인 역사 속에서 가끔은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시대도 있었다.
인류의 시대는 태초부터 죽음의 이야기가 끌고 온 역사로 채워졌다. 그러나 가난한 자든 부자인, 병든 자든 건강한 자이든 또는 난사람 든사람, 된사람 중의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죽음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어느 인물도 죽음의 마무리 후

에 생명을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
핵탄두 미사일이나 기근과 자연재해 소식도 그렇지만 올 한 해 동안 전 인류의 삶을 흔들어대고 있는 코로나도 결국 죽음의 이야기이니 오늘 우리만 이상한 시대를 만난 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았던 인류역사 속에서 의학이나 과학을 통해 소망을 찾아내 죽음을 이겨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더구나 때로는 가슴을 적시며 살아가는 시인들이 나타나 낙엽 지는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겨울이나 다시 보는 생명의 이야기를 통해 소망의 줄을 던져주곤 했다.
한 시인의 작품을 열어본다. 시인(詩人)을 불러오는 시론(時論)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시론글 속에 시인 한 사람을 불러온다. 장미를 노래하다 장미가시에 찔려 세상을 떠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가 묻혀있는 라몽의 언덕 위 교회마당의 비문에는 그의 장미시가 새겨져 있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그토록 많은 눈꺼풀 아래/ 누구의 것도 아닌 잠이 고픈 마음이여..." 조각가 로맹, 철학자 니체와 동시대를 살면서 "예술가에게는 깊은 외로움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던 릴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죽음을 생각해 하는 글을 써내려가곤 했지만 그가 마음으로 부르짖고 싶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다.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이렇게 첫 줄을 썼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몰려드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곳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어서 다양한 죽음을 써내려가는 릴케는 "옛날에 사람들은 과일에 씨가 들어있듯이, 사람도 내부에 죽음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죽음을 파고든다. 그러나 이처럼 생명의 잉태에서도 죽음을 보고, 병원도 죽음의 공장으로, 일상의 사물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를 짚어내고 있는 28살 말테의 눈을 통해 릴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릴케는 '죽음은 결국 부활을 위한 전주곡'이었다 라든가,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첫걸음'이라는 일말의 설명도 덧붙여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전도서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의 대전환점을 붙여놓지도 않았다. 도무지 답이 가려져있어 답답한 시험문제를 보는 것 같은 "말테의 수기"는 이렇게 끝난 것일까? 아니다. 릴케는 "말테의 수기"에서 죽음을 통해 삶을, 어두움을 통해 빛을 보게 해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기에 꽤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 작품이다. 릴케는 다양한 죽음이야기들 속에 중간 중간 생명줄 같은 문장들을 던져놓음으로써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갈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독과 적막 속에서 나는 스스로 기력을 되찾고 자신을 조금 사랑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영혼들이여, 내가 찬양하던 사람들의 영혼들이여, 나를 굳세게 해다오.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해다오/ 꽃과 열매는 익고 나서야 땅에 떨어진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릴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원초적 생명의 그리움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말테의 수기"처럼 구약 전도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전도서는 성경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낙엽이 주검처럼 쌓여가기 시작하는 이 시월에, 릴케문학의 애들러 짚어보는 생명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삭막하고 허허로운 정지화면 같은 올 한해를 살아온 인생들을 향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문제는 직접 돌파해나가는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전도서의 생명메시지를 다시 되새겨본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다. 하나님, 그 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율해처럼 혼란한 시대 속에 여전히 죽음이야기가 덮여올지라도 우리는 꽃피우는 생명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 길이 살 길이기에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986-4400 (대표)
 · Fax (718) 9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하나님나라 국가대표선수

주일 예배가 끝난 후 태권도 국제심판인 여 집사님이 인사를 하러 목사 방으로 왔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작정하고 이제 떠난다는 것이다. 이 부부들은 모두가 태권도 사범들이다. 뉴욕에서 태권도 보급의 꿈을 안고 왔지만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 양육도 쉽지 않았다. 교우의 전도를 받고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선 생업에 쫓기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운 삶에 지칠 대로 지쳤고 교

회가 서너 번 재정적인 후원도 했던 가정이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역이민을 결정한 것인데... 딱히 한국에도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돌과귀를 찾아보려는 심산이었다. 참으로 딱하고 어려운 가정과 미래를 보면서 목사는 인생 삶의 우선순위를 조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룩삼삼(마6:33)"의 원리를 붙들고 살았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선수였던 이영무 선수의 간증을 들려주었다.

이영무 선수는 어려서부터 축구에 대한 꿈을 가졌고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한 끝에 드디어 20년 만에 한국 축구국가대표가 되었을 때였다. 태릉선수촌에 입소하여 고달픈 훈련 중에도 전도와 기도생활에 전력을 다했다. 그 무렵에 유명한 차범근 선수도 전도됐었고 많은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추운 겨울에도 옥상에 올라가서 깊은 밤중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가 너를 축구 국가대표선수로 부르지 않았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고 고민 끝에 꼭지 하나를 남기고 태릉선수촌을 몰래 빠져 나왔다. 그렇게도 대표선수가 되기를 열망했는데 스스로 그만두고 떠나는 자신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고 한다. 딱히 갈 곳도 없었고 오라는 곳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 게 혼쭐이 나서 다시 쫓겨 올 게 뻔했다. 그는 기도원으로 발걸음 옮겼고 주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선수촌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이 선수를 찾아오라는 감독과 대한 축구협회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몸은 국가대표였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나라 대표선수가 되기를 열망했다.

드디어 말레시아 쿠아라룸플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이영무 선수는 그라운드에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TV로 아시아 전역에 중계가 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기도 세레모니가 수많은 반응을 일으켰다. 그렇게도 대표선수가 되기를 열망했는데 스스로 그만두고 떠나는 자신의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고 한다. 딱히 갈 곳도 없었고 오라는 곳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 게 혼쭐이 나서 다시 쫓겨 올 게 뻔했다. 그는 기도원으로 발걸음 옮겼고 주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기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선수촌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이 선수를 찾아오라는 감독과 대한 축구협회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은 타의에 의해서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몸은 국가대표였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나라 대표선수가 되기를 열망했다.

드디어 말레시아 쿠아라룸플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이영무 선수는 그라운드에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제 3세계에 복음의 전도자로 꾸준히 달리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남들이 갖지 못한 좋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세요.' 목사는 그의 앞날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평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다. 그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다.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던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아무말을 닦은 그의 얼굴을 환하게 피워 있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는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미래의 하나님나라 국가대표선수를 바라며 그의 앞날을 계속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노기송 목사

(뉴욕예루살렘교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산상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해주신 모든 말씀은 중요하고 진리이시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더 귀한 말씀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 간디도 읽고 감동을 받은 말씀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은 일반 백성들보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해주신 말씀으로(마5:1) 성도들보다 주의 종(목사)들이 더 심도 깊게 듣고 마음에 새겨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말씀을 다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7장 22절, 23절 때문입니다.

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나 이리처럼 노략질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노략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해주시는 "열매"를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열매"가 중요 합니다.

열매란 목회의 결산이요 목사로써 살아온 삶이겠지요. 목회하는 동안 교인 숫자나 엄청난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

믿은 성도)과 성도들이 사는 영토(교회)와 그 교회를 다스리는 주권(성경말씀: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목사라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목숨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써 개 교회를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뜻을 모르고 목회한 목사는 아마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역을 보면, 목사로서 이런 평범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교회를 빼놓고 많은 교회들이 냄비 속의 개구리 마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목사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나라의 그 꼴을 보면서 기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순 핑계일 뿐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좌익세력으로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명예와 돈과 수명이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노략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도 문 닫고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며 목사일도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

고 있는 양떼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똑똑해져야 합니다.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 계속 꼴을 먹여가는 결국 자기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별하십시오. 외형과 겉으로 목사를 판단하지 말고 그 목사의 중심과 삶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지를 영적으로 구별하십시오. 자유대한민국 현 정권이 주사파 좌익세력들도 꼭 차서 나라를 모든 면에서 망하게 하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교회 안에서 노략질로 정신이 없는 가짜 목사들을 가려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이 적에게 사살 당하고 화형 당하여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쇼만 보며

는 것이 바로 가짜들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목사들은 더 나아가 진짜 목사를 가짜 목사로 몰아갑니다. 참으로 이제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 목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주의 종들)에게 주신 엄청난 말씀이라면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더 각성하고 이 말씀들을 신중히 받아들이어야 할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가짜요 죽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가짜 목사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비가 오고 있고 창수 같은 공산당 같은 핍박이 오고 심한 박해가 교회에 부딪혀도 꺾임 없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노략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천국 간다고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래성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계속 노략질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좌경화와 나아가 전 세계의 인간들이 행하는 모습과 영적인 흐름을 볼 때에 예수님 재림이 너무 너무 가까이 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는 한 마디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rhokisong@yahoo.com

“교회안의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를 구별하라”

마태복음 7장 15절-29절

나님 앞에 살아온 인간 목사로써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대로 목회와 자기 멋대로 개인 생활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6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목사로써 먼저, 항상, 우선하여야 할 것이 내 뜻과 내 목적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나라의 의미를 백성과 영토(땅)와 주권(헌법)을 갖춘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평범한 목회를 할 수 없고 믿음의 자유를 가질 수 없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으며 교회도 폐쇄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북한이나 중국 공산국가가 아닌 미국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말입니다. 깨어있고 의식 있는 백성이라면 지금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중국에서 퍼트린 우한 바이러스라는 괴질을 이용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주사파 좌익세력들이 날뛰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괴질을 이용하여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들고 있습니다. 우매한 백성들은 냄비 속에 달아오르는 열기를 모르는 개구리처럼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만, 영적

면서도 말입니다. 특히 공산화가 되면 목사가 제일 먼저 총살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것은 6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가짜 목사들의 근본은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닌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짜들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낙태도 차별 금지법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나아가 공산주의에 조정을 받는 WCC, WEA, NCCK 같은 단체들의 영향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가 가짜 목사를 때문입니다. 그런 가짜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속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가짜 목사들을 속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짜 목사를 구분하여 속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 나라를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말살하여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몰고 가는데도 그 정부를 지지하거나 묵인하는 목사가 가짜 목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현 정부가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부정하고 친일파로 몰아가 건국 근본정신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본이 있었기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유대한민국 근본을 무시하는 현 주사파 정부를 동조한다

에너지전환시대...

(2면에서 계속)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대치할 경우, 미 해군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해 중국의 석유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 경제와 군사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따라서 석유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중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은 신에너지 분야

의 선발주자 위치를 차지해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미국보다 더 많은데, 만약 신차들이 모두 휘발유 차량이라면 중국의 석유수입과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의 완강(Wan Gang)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중국이 "전기차 개발"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신속히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중국은 정부주도의 공격적 지

원정책으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석유수입과 도시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내연기관 자동차 분야에서 기존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사업영역인 전기차를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위협하고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더욱이, 중국은 이미 전기차 배

터리의 필수원료인 리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공급량 1위 국가이며,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80% 수준의 리튬을 생산한다.

중국이 에너지 전환의 최대수혜국이라면, 북쪽의 러시아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심각한 손해를 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를 에너지 강국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물론 러시아가 엄청

난 규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러시아는 세계 3대 산유국 중 하나이며, 천연가스 보유량 2위이면서 세계 1위의 가스 수출국이다.

푸틴 대통령이 과거 이탈리아 해군이라든, 북쪽의 러시아는 에너지 전환에 따라 심각한 손해를 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나는 러시아를 에너지 강국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물론 러시아가 엄청

대를 강화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동시에 에너지는 러시아의 전략적 약점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은 러시아 국가와 권력을 유지하는 재정적 기반이 됐으며, 국가 전체 수출 금액의 55-60%, 러시아 정부 예산의 40-50%, 국가 GDP의 30%를 차지한다.

(6면으로 계속)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2020년 대선 “신앙, 가치관” 을 투표하세요!-크리스천 투표 가이드라인(해

확연하게 다른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2개의 정치정강(Political Platform) 비교

투표는 “정치”가 아닙니다. 투표는 “우리의 삶”입니다. 투표는 “신앙의 자유를 좌우할 힘”입니다. 투표는 내 자녀들의 삶의 방향과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흐름잡이입니다!

투표를 통해 선한 법(성경적인 법)/악한 법(창조질서를 거역하는 법)을 만드는 대통령부터 정치 리더들, 입법부, 판사들이 뽑히며 그 법들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도 할 수 있으며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시절을 통해 뼈저리게 체험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역시 치명적입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은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과 무분별한 낙태 허용, 학부모들의 동의를 무시한 학생들의 성관계 할 권리, 낙태할 권리를 가르치며, 주정부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구절들을 뺀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들 제한시키기 법안들을 제출하는 등등, 잘못된 투표 선택의 아주 작은 몇 가지 예들이나 심각하게 아픈 예들입니다.

여러분의 투표는 여러분이 도시와 국가를 건강히 건설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If the foundations ar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시 11: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마6:33).1111

정치 정강(Political Platform)이란?

각 당들이 결사적으로 지지겠다고 맹세하는 신앙고백문과 같은 것이기에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거의 자신이 속한 당의 정강대로 법을 만들고 지지합니다. 한 예로, 이번 캘리포니아에서 소아성에

자를 정상화시키는 SB145를 토론 때는 반대했던 민주당의 원 Lorena Gonzalez는 결국 공식 투표 자리에서는 SB145에 Yes(찬성)표를 넣었습니다. 결국 기권한 사람들 빼고 100% 민주당 찬성으로 통과됐고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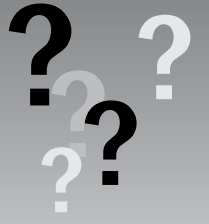
이 9월말 사인함으로 정식 법안으로 통과했습니다.

2020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Platform) 비교 (이해를 돕고자 그동안 실행된 정책 중 약간의 example 및 설명포함)

Table with 3 columns: Issue, Policy, and Details. Topics include: 대아 생명적 보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 신앙적 양심에 따른 건강보험 '서액 혹은 거부권' 보호, 정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우선, 부모의 참여와 선택 존중, 공립학교에서 성경과목 채택, 홀로몸길 장려, School-Choice 정책(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결론 순결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 강조,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전환자 건강 보장법 법 제정 반대 및 폐지, 헌법(가족/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판사 임명, 군대의 목적과 사기를 흔들려는 동성애 허용 반대, 군목들의 성관계 금지와 사용 허락, 국가를 위한 군대 강화, 연방기금으로 외국 낙태시설 지원금지, 오바마케어 때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LGBT 포용정책 강요한것을 강력 비난, 비윤리적인 성교육과 낙태 대기업인 Planned Parenthood 자금 억제, ISIS를 비롯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모든 테러리즘 배격, 평범한 무슬림 시민과 테러단체 구분,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친구 중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늘 그 친구는 하는 말이 '야, 날 전도할 생각하지 마, 나는 교회안가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의롭다'며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우며 복음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 못가고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브레아에서 김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하기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전도하다보면 집사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인간이 자기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음의 예화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실력이 좋아 서울의 한강을 수영하여 건넌다고 합니다. 또 과거 조오련 같은 사람은 수영을 잘해 자기 실력으로 흑현 해탄을 건널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계의 어느 누구도 한 천 앞바다에서 수영하여 이 미국까지 수영해서 올 수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오다가 힘이 빠져서 1/100의 거리도 못가 바다에서 죽거나 심장마비가 걸리거나 상어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을 오려면 자기 수영실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로지 KAL기나 아시아나 비행기를 믿고 올라타야 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남보다 낫다는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의와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수영으로 미국 오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비행기에 올라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행기 타듯 그 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인간의 의란 것은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구구단을 가르치고는 며칠 후에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8X7은 얼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8X7=56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채점을 하는데 어떤 학생은 54라도 썼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46으로 썼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돌 다 뺏점으로 채점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55라고 쓴 한 학생이 "선생님 저는 정답과는 겨우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저는 10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점수가 똑같습니까? 왜 저도 뺏점입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좀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차이가 하나나 10이나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56만이 맞는 정답이다. 다른 답은 다 뺏점이다. 더 나은 뺏점도 없고 좀 덜한 뺏점도 없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진 자기 의라는 것이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별 볼일 없는 뺏점짜리 죄인인데 비교해서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의롭지 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교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나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며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forgiveness) 죄인인 나를 의인의 신분으로 법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Justification).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아 법적으로 미국인이 되는 것처럼 아직 얼굴은 노란 한국인이 되고 된장찌개를 먹고 영어도 유창하게 못하지만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 것처럼 나의 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모두 거짓말을 한다, 침묵, 말그릇, 독독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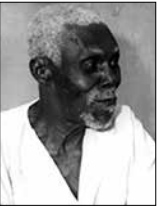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손하(Sonha)



손하족의 주거 지역들 중 하나가 가나에 세워진 것은 주후 750년경이었다. 베르베르족의 압박 때문에 손하족은 작은 그룹들로 흩어져 이웃 지역들로 흡수됐는데, 이들은 Marka, Nono 그리고 Azer의 세 주요 그룹들로 나뉘었다. 대체로 이들 그룹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공예품의 다양한 종류에 따라 더 작은 종족 그룹들로 세분되는데, 가장 중요한 손하족의 종족 그룹들은 시세(Sisse), 드라마(Drame), 실라

(Sylla) 그리고 칸테(Kante)다. 어떤 손하족 종족 그룹들은 점차적으로 월로프족, 세레족 그리고 말린케족들에 흡수됐다. 오늘날 부르키나파소에는 10만명 가량의 손하족이 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국토의 남서쪽, 말리와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국경지대에 거주한다. 보다 거대한 유목민인 풀라니족의 영향에 떠밀려 손하족은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게 됐으며 손하케어(또는 사라콜레어 Sarakole)로 불리는 만딩고 언어의 한 종류를 사용한다.

삶의 모습

손하족의 사회적 구조와 조직은 만데(Mande) 계통 종족 그룹의 전형이다. 그들은 수수, 쌀, 팥 그리고 조 등을 재배하는 농부들이며 염소, 양, 말, 닭 그리고 소들을 사육하기도 한다. 고기잡이와 사냥은 거의 하지 않으나 무역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손하족은 그들의 생산품을 교역하기 위해 지역시장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여행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손하족 남자들은 땅을 갈아서 곡식을 재배하고 여자들은 채소밭을 가꾸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취업 이주율을 보인다. 남자인구 중 약 20-70% 가량이 이주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2-4년간 집을 떠나있다. 여자들은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집에

남아 여자가 주도하는(matriarchal) 사회를 형성한다.

손하족은 두 종류로 구별된 방식의 가옥들이 밀집한 촌락들에 산다. 하나는 원통형의 벽돌담에 초가를 얹은 움막집 형태이고, 또 하나는 벽돌담에 편평한 계단형 지붕을 얹은 내부 정원이 있는 장방형의 가옥이다. 간선도로 양 옆으로 집들이 줄지어 있고 마을광장에 모스크가 있는 것이 전형적인 손하족 마을이다.

신부대를 지불하는 것이 손하족의 결혼조건이다. 주변 종족들과는 대조적으로 신부대는 신부의 부모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지불해 지참금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혼전 성관계는 금기시되며 이슬람법을 따라 한 남자가 네 명의 아내까지 거느릴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용납된다.

과거에 유산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들에게 전수됐다. 오늘날은 무슬림의 재산분배 규정들에 의거해 8분의 1은 미망인이 갖고, 아들들은 각각 동일한 몫을, 딸들은 아들 몫의 절반씩을 물려받게 된다.

신앙

부르키나파소에 사는 손하족은 대부분(80%) 수니무슬림들이며, 나머지 20%는 다양한 종류의 정령숭배신앙을 따른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선지자인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들의 성전인 코란은 모하메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았다고 전해진다.

무슬림들로서 손하족은 다섯 가지 중요한 "기둥"으로 불리는 이슬람의 의무들을 준행한다. 이 다섯 기둥들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이다"라는 믿음의 선언; 메카를 향해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것; 관대한 구제; 무슬림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기간의 금식; 그리고 가능한 한 일생에 적어도 한번 메카로의 성지순례 등을 포함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르키나파소의 10만 명이 넘는 손하족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그리스도인은 1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현재 한 개의 선교단체가 이 신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으나 아직 그들의 언어로 성경번역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개종자들은 무슬림들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복음전도 또한 극히 어렵다. 대부분의 손하족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명확히 들 어본 적이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복음주의유권자 10명 중 6명 "트럼프 찍겠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적 보수 성향을 표출해 온 미국 내 복음주의자 10명 중 6명(61%)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29%에 그쳤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최근 미국 내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복음주의의 신앙을 가진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성향을 보인 가운데 복음주의자 그룹 내에서도 인종에 따라 성향차가 두드러졌다. 백인 복음주의자의 경우 트럼프 지지율이 73%에 달한 반면 아프리카계 복음주의자는 19%에 그쳤다.

반대로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아프리카계 복음주의자(69%)가 백인(19%)에 비해 50% 포인트 앞서 대조를 보였다. 기타 인종의 복음주의자 그룹에서는 트럼프 지지율(58%)이 바이든(32%)을 앞섰다.

복음주의자 그룹은 미국 내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표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이 그룹 유권자에게서 80%의 득표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와 '코로나19'였다. '대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능력'을 1, 2위로 꼽았다.

하지만 3순위부터는 답변이 갈렸다. 복음주의자들은 '낙태 허용 문제'(11%) '종교적 자유 보호'(11%)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고, '국가안보 유지'(10%) '후보자의 인성'(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복음주의의 신앙이 없는 미국인들은

'후보자의 인성'(16%) '인종차별 문제'(8%)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스콧 매킨널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4년 전 조사 당시엔 '미정' '제3의 후보지지'라는 응답이 각각 16%, 8%였지만 올해는 7%, 2%로 떨어졌다"며 "유권자들이 4년 전에 비해 확고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9-23일 온라인 설문용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2%이다.

"코로나19가 교인들 영적성장 이끌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교인들의 신앙심을 키우는 효과가 미국 목회자들의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목회자들의 정서적 행복감은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리서치기업 바나그룹(Barna Group)이 지난 8월 27-31일 미국 개신교 목회자 31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62%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교인들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23%에 그쳤다. 16%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교인들의 신앙심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 3월 20-23일 미 목회자 222명을 상대로 조사했을 당시만 해도 50%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위기가 교인들의 개인 신앙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5개월 지난 현재 신앙이 성장한 교인들의 숫자는 목회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밑돈 것이다.

데이비드 키나만 바나그룹 대표는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초기 확산 당시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가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현재 목회자들은 신앙심이 감소한 교인보다 증가한 교인이 아주 조금 많을 뿐이라는 지난 4개월여의 큰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나그룹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동안 미 목회자들의 정서적 행복감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나그룹이 지난 4월 7-13일 미 목회자 246명을 상대로 조사했을 당시엔 대다수(65%) 목회자가 자신과 교인들의 정서적 행복도가 괜찮거나 좋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그 비율은 50%에 그쳤다. 지난 조사보다 15%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바나그룹이 2016년 같은 질문을 했을 당시 해당 비율이 85%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정서적 행복도가 평균 이하 또는 빈곤한 수준이라고 답한 목회자의 비율도 지난 4월 조사 당시 11%에 그쳤던 것에 비교해 이번 조사에선 20%로 9%P 증가했다.

바나그룹은 지난 3월 20일부터 매주 그룹 내 개신교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고 있다.

위용 드러낸 세계 최대 병원선 '글로벌머시'

움직이는 의료봉사선을 운영하는 국제NGO단체 머시십이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병원선 '글로벌머시(Global Mercy)' 건조 현황을 지난 7일 공개했다고 심인사이트 등 해운 전문 외신이 보도했다(사진). 글로벌머시는 내년 하반기 건조가 마무리되면 아프리카로 떠날 예정이다.



1978년 설립된 머시십은 병원선을 이용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찾아 현지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다.

머시십 로사 휘태커 회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글로벌머시는 의료 취약계층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74m 길이의 3만7000t급 대형 선박인 글로벌머시는 6개의 수술실, 치료실과 강당, 체육시설, 카페,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의사와

승무원, 요리사, 현지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탑승할 수 있다. 아프리카 현지 의료진에 의료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구현된 시뮬레이션 실습실도 마련했다.

머시십아프리카 피터 엠펠레 이사는 "매년 전 세계 1690만명이 외과적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한다"며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93%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한다. 글로벌머시로 큰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美, 북한에 "실망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실망했다"고 반응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 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데 대한 안도감도 감지된다.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지 위해 무리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열병식과 관련한 국민일보의 질의에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비전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4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신형 ICBM 공개가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향후 (북·미) 협상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시대...

(4면에서 계속)

지난 20년간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줄곧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고, 러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불려오는 위협에 맞닥뜨리게 됐다.

에너지 자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견뎠던 중동 산유국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미국이 셰일 오일에 힘입어 세계 1위의 산유국으로 부상한 것이었다. 미국의 부상으로 화석연료 분야에서 경쟁이 심해졌지만, 여전히 중동 국가는 경제의 대부분을 석유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다가올 에너지 전환이 석유 수요를 줄인다면 중동 산유국의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수출금액이 정부수입의 70%, 국가 GDP의 40%

에 이른다고 밝혔다. 게다가, "석유부문 이외의 경제활동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의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는 국가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의 시급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1970년 이래 우리는 5개년 개발계획을 통해 3가지 기본 목표를 추진했다. 경제 다변화, 민간 부문 성장, 석유 의존도 완화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비전 2030에서는 그간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해외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수십 년간 석유 수출에 의존해 온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 환경에서는 더 어렵다. 더욱이 석유수출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탈석유와 경제구조 다변화

를 위한 투자재원에 필수적이기도 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맞댄 석유부국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 석유수출국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 탈석유 시대의 흐름이 널리 알려지기 훨씬 전인 2007년,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 독자적인 경제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Mohammed Bin Zayed) 왕세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50년 뒤 마지막 방울의 석유를 수출한다면, 그때 과연 슬픔의 눈물을 흘릴까?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분야에 투자한다면 50년 뒤에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성공을 축하할 것이다." 20년 전 국가 GDP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했던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경제의 60%가 비석유 부문이다.

미국은 이미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분야인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학, 물리학, 재료공학 분야는 물론, 탄소 포집, 수소연료, 디지털화, 제조업, 인공지능,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혁신이 꼭 필요하다.

미국의 강점은 다양하다.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대학과 민간 연구소, 수많은 기업과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역동적이고 특출난 에너지 혁신 생태계 덕분에 미국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기술혁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창업의 위험을 장려하는 문화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는 금융시스템도 갖췄다. 일례로, 60개 첨단 원자력 프로젝트가 민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래 에너지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간 65억 달러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다른 나라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국은 또한 지난 10년 동안의

"셰일혁명"에 힘입어 기존 화석연료 자원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셰일혁명은 수압파쇄법(프래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던 2008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당시 모든 사람이 가스 사업의 쇠퇴를 예상했다.

셰일혁명 덕분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석유수출 강국,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 액화천연가스(LNG) 주요 수출국이 됐다. 셰일산업은 2,000억 달러 이상의 설비투자자와 수백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수천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였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입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셰일혁명이 불러온 급속한 석유와 가스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미국이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 영향력과 유연성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석유와 가스 수출이 미국-인도 간 유대관

계를 촉진했다. 또한, 셰일혁명은 미국 에너지 안보를 굳건하게 떠받치는 토대가 된다.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질 에너지 전환에 미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는 보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의 시대를 향해가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 "셰일 시추(프래킹) 금지" 정책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석유와 가스 유정에는 대부분 프래킹 기법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전략적 결과를 낳는다. 팬데믹 종료 이후 세계경기가 회복하면 글로벌 석유, 가스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미국의 공급 감소는 다른 석유, 가스 수출국이 대신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최소 10-20년 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챙길 것이다.

규례와 자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TV 시청과 오락을 금하고 돈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나?” 과거 보수적 신앙을 강조하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배웠다. 월요일에 학기 말고사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 심지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주일 밤 자정까지는 절대로 공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다. 또한 주일에 치르는 공무원 시험과 주산 급수시험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여겨졌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의 교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 신앙의 전통을 중시하는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 과거 신앙의 선배들과는 다른 의견을 지닌 보수적 신앙을 지닌 성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의 변화는 70년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일어났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는, 문화와 경제를 포함하여 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근대화의 영향으로 삶의 정황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획일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다 실제적인 영향을 끼친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점검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룩한 습관을 넘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공부하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다. 기독교 서점에 성경 공부를 안내하는 책들이 많이 진열되었다. 예배와 교회 성경공부에 참석해야 배울 수 있던 시대가 지난 것이다. 사상의 변화를 직감한 목회자들이 먼저 성경연구에 힘을 쏟았으며 각 교회마다 해박한 성경지식을 소유한 평신도들의 수가 많아졌다.

70년대 사회는 강압적 규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풍기문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남자는 장발 여자는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다. 이런 현상은 전에 비하여 자신이 결정한 삶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요구가 늘어난 것의 반증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신앙적으로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자유를 앗아가는 규례가 지나치게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과연 성경이 분명하게 그런 요구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남성들은 반드시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나?” “세상 음악에 맞추어 흥을 느끼며 춤을 추는 것을 금해야 하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구절은 구약의 나실인처럼 아예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는 명령인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많은 규례에 대해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 성경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는 하나의 정답을 얻

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각 교회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 기준이 세워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결국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규례들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제시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율법주의

1세기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주로 회심한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종교적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은 구

만한 태도로 인해 심각한 폐해를 보인다. 그러므로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거부하는 공로주의를 낳기도 하였다.

율법주의의 오류는 초대교회 이후 교회사 전체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초대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은 뒤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순교자와 고백자들을 공로를 인정하고 영웅으로 평가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초대교회의 대표적 교부 어거스틴과 논쟁을 벌인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전적타락을 부인하고, 본성적으로 선

라,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규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성문화되지 않은 것들 외에도 각 교파와 교단이 지닌 신학의 정체성과 맞물려진 수많은 규정과 규례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실상 임의대로 규정된 신앙 세칙과 윤리적 지침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장 중요시해야 할 문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내용을 세부규칙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도가 손

위치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혁자들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중세교회의 전통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디아포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고, 칼빈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심에 성상 문제가 있었다. 루터는 과거 로마교회 건물에서 성상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않았는데, 성상 문제를 ‘아디아포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칼빈은 성상은 성경의 계명을 어기는 우상이기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난 뒤 루터파 내에서 ‘아디아포라’로 인해 논쟁이 일어났다. 루터의 제자인 멜랑히톤이 로마교회와 화해를 추구하여 구교의 의식을 ‘아디아포라’로 간주하여 수용하려 하자, 보수적 신학자들이 이에 반대하여 총공세를 벌였다. 그 후에도 루터파 내에서 같은 성격의 논쟁이 있었는데,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오페라와 카드놀이 등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이런 행위를 ‘아디아포라’로 규정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영국에 등장한 청교도들은 성경이 중심된 철저한 교회개혁을 원하였다. 피의 여왕 메리를 이어 엘리자베스 1세가 왕좌에 오른 뒤 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받아들이는 영국 국교회에 속한 자들과 이에 반대하여 분리를 선호하는 청교도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생겨났다. 그 중 하나가 세속의 권위가 교회의 일에 대해 권위를 갖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었다. 영국 국교회에 속한 요한 윌트기프트(John Whitgift, 1630-1604)는 교회의 일은 ‘아디아포라’로서 교회가 속한 정부의 간섭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603)는 자기의 종교정책을 지지하는 자들을 주교로 임명하는 여왕의 정책에 맞서서 교회 안에 감독이란 직책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아디아포라’ 자체는 논리적이면서도 이치에 맞는 가르침처럼 보이나, 실상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견을 불러오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므로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과 사고 방법이 달라지기에 과거의 문헌을 뒤적거리면서 발견한 ‘아디아포라’의 내용을 여과과 정도 없이 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말은 ‘아디아포라’를 올바르게 결정하려면 조금 더 근본적인 성경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2)

교회사가 가르친다(9)-율법주의의 틀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생각과 행동 통제하는 성경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배려와 절제 필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양심 지닐 때 ‘아디아포라’ 내용은 거룩한 도구

약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함께, 아브라함 시대의 구전들과 모세가 전하였다는 다른 율법 등을 총 망라하여 문서화 한 탈무드를 지키는 것을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직후, 율법을 지키는 일과 관계하여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났다. 이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된 뒤에도, 구약의 율법사상의 틀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과연 할례를 행할 것인지, 구약의 절기와 제도를 지켜야 할 것인지, 안식일의 규례를 지속해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는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특히 규례와 의식을 중시하던 자들이 그렇지 않던 성도들을 정죄하는 편견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갈등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율법주의는 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린 뒤 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긍정적 태도로 배경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법의 정신을 배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세운 규례로 인해 무질서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나는 법을 지키다!”라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지기보다, 타인들에게 드러내 보이며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오

한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성취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롭게 됨을 얻기 위해 성도들은 반드시 고행과 순례, 그리고 참회 등 율법적 공로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기를 든 것도 그가 로마교회의 공로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요구 자체는 바람직하다.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분명 달라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 아닌, 더욱 분명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반드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오류이다. 부패한 인간의 연약과 부족 때문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놀리고 끌려가는 것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특권이 주어졌다.

톱에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할 수 있는지, 의사와 간호사가 주일에 병원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주일에 교회에 가기 위해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얻을 수 없다.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이 문제들로 인해 성도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전하는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아디아포라(Adiaphora)’에 관한 가르침이다. 아디아포라는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닌 문제들을 지칭한다. 즉, 성경에 직접 허용하거나 금지하지 않기에 함부로 선악을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킨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주초문제도 바로 ‘아디아포라’에 속한다. 보수적 전통신학자들 중에도 주초를 꺼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크게 놀라고 그들의 신앙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아디아포라-이견

16세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성경을 유일한 기본원리로 삼았다. 로마가톨릭교회가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버거하는

코람데오

일부 보수 신학자 중에 ‘아디아포라’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 (14면으로 계속)

아디아포라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제할 뿐 아니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cross NY, NJ, and other regions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리더십 코멘터리 (121)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신데믹 위기 호모 마스크스의 출현

마스크 쓴 인간 호모 마스크스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 각국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당장은 손에 잡히지 않고 희생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인류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다. 지구 기온이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도 재앙이 닥칠 것이고 미세먼지 오염도 심각해져서 전 세계에서 연간 700만-9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불러온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다.

신데믹(Syndemic)은 2개 이상의 유행병이 동시 또는 연이어 집단에 나타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이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위기가운데 실패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실패라는 방법(Negative Guidance)도 쓰신다. 어떤 면에선 실수(mistake)의 유익은 실패의 유익으로 해석해도 손색이 없다. M(message, 실수와 실패는 삶에 관한 메시지를 준다). I(Interruption, 실수와 실패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도록 가로 막는다). S(Signposts, 실수와 실패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 T(Tests, 실수와 실패는 더 큰 성숙으로 나가게 하는 테스트가 된다). A(Awakenings, 실수와 실패는 정신적

패한다. 믿음 안에서 영적 성장을 통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리더십을 갖추어 나가자.

리더는 가능성의 세계를 꿈꾸는 미래 지니어

리더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나라의 생각과 비전을 상상하는 미래지니어(imagineer)이다. 미래지니어는 상상력(imagination)과 엔지니어(engineer)를 합성해서 미국의 디즈니사가 만든 새로운 직무 이름이다. 리더의 생각과 비전은 지나가는 공상이나 허상, 망상이나 몽상과는 다른 남다른 것이다. 그래서 영적리더의 생각과 비전은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다.

리더는 혁신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이웃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하는 공감능력, 공감으로 포착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전개되는 영적인 생각과 상상력 그리고 생각과 상상력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세상에 적용하는 가운데 실질적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영적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 영적인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위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객관적 사실로 정보공백을 메우고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영적리더는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령충만으로 극복 리더의 사명은 현실을 변화시키고 시대정신을 변화시켜야

중반 미국 코네티컷대학의 의학 인류학자 매릴 싱어 박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신데믹의 상징은 호모 마스크스(Homo maskus)의 등장이다. 호모 마스크스는 마스크를 쓴 인간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플라스토릭을 재료로 만든 마스크의 작용은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기후변화와 산불, 미세먼지 오염과도 관련이 있다. 100년 전 스페인 독감 때도 많은 인류가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은 인류의 자업자득이다.

Negative Guidance

큰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며 코로나가 물러가기만을 바라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어 창조적인 내일과 미래의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역사속의 위대한 리더들은 주위에 강인한 인상을 남기며 위기 속에서도 결실을 맺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하면 정신을 잃고 당황해한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를 잘 선용하

이고 지적으로 깨어나게 한다. K(Keys, 실수와 실패는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열쇠이다). E(Exploration, 실수와 실패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하는 탐험이다). 실패라는 방법은 꽤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실패 없이 믿음을 지킬 정도로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이고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낸다면 이것은 실패의 긍정적인 면이다.

영적리더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성령충만이다. 삶은 굴곡지고 고된 것이다. 어떤 인생이든 실패는 오게 되어 있다. 그 실패의 시간을 잘 받아들이야 한다. 지혜로운 리더는 실패를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실패를 새로운 삶의 밑거름과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실패는 살면서 지나가는 하나의 통과점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영적리더가 무너지면 교회도 세상과의 관계에서 실

리게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메시지는 서로 모순이 없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직은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을 듣고 반영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신뢰가 형성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리더십이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고 목표를 향해 모든 힘을 집중시켜 조화롭게 결실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리더는 시대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다. 탁월한 리더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역량들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를 키워야 한다. 리더의 사명은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리더의 사명은 시대정신을 파악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서시립대학교 교수)

부부애

몇 년 전에 동네를 산책하다 보니 어느 집 앞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은 것이 보였다. 나무 밑에 "사구라"라는 팻말을 붙인 것을 보고 그 나무가 벚꽃나무인 것을 알았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나무에 꽃이 필만큼 자랐을 때 동네 아저씨가 나에게 그 나무의 사연을 말해주었다. 그 집의 아내 이름이 사구라였는데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아내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앞뜰에 사구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들이 가끔 집 앞에서 보이는 것으로 봐서 그 아내는 40대 즈음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았다. 집을 드나들 때마다 나무를 지나가야 하니까 아마도 그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보며 아내에게 안부 인사를 건넬 것 같다. 그 이후로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아내를 앞서 보낸 남편의 안쓰러운 마음이 전해진다.

부부 사이를 일컫는 여러 말이 있다. 천생연분, 백년해로 등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만나 결혼을 하니 천생연분일 것이다. 또한 문자 그대로 백년은 아니겠지만 부부의 연을 맺은 후 한평생을 서로 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어가고 백년해로 하라는 말로 축복해준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잘 살라는 말도 있다. 젊은 날 만난 부부가 평생을 오손도손 잘 지내고 노년기를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는 것은 큰 복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천생연분 대신 평생원수라는 말도 있고 황혼이혼, 졸혼 등 옛날에는 없던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다.

황혼이혼은 말 그대로 인생의 황혼기에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부부가 결혼 후 적응기간을 보내지 못하고 이혼하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미련 없이 돌아서는 경우다. 오죽하면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혼을 할까 싶기도 하지만 여전히 씩씩한 단이다. 또한 결혼관계는 형식적으로 유지하지만 각각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의 삶을 즐긴다는 졸혼은 더 황당한 단어다.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에서 졸혼이라니 졸업의 의미가 많이도 왜곡된 것 같다. 졸업은 일정의 과정을 잘 마쳐야 할 수 있는 것인데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결혼을 졸업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부관계가 위태로운 시대를 살면서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최근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를 들었다. 오래 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이다. 요즘은 같은 장수시대는 이 노래 제목을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로 바꾸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신선 시절부터 인생을 함께 하며 기쁜 일, 어려운 일을 함께 겪은 남편이 죽음을 앞 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곡이다. 나이가 들은 탓인지 그 곡을 들으면서 아내를 앞서 보내는 남편의 슬픔이 느껴져서 눈시울이 젖었다.

어느 부부가 평생을 마냥 좋지만 할까? 미울 때, 짜증날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지만 긴 세월을 함께 하다 보니 서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측은하고 안쓰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코스타 사역에 동참하는 어느 교수님이 있다. 그 분과 개인적으로 친교를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완전히 학자 타입인 분이 다. 그룹 카톡에 있는 그분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파파노인이 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 올려져 있었다. 인생의 길동무인 부부 모습을 그린 그 사진이 주는 푸근함과 따뜻함이 그대로 다가와서 빈틈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교수님이 친밀하게 느껴졌다. 그 그림처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쌓인 서운한 것, 미운 것을 털어 버리고 주님이 부르실 그 날까지 손 꼭 잡고 서로 의지하며 가는 부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토): 오전 6:30 토요일(토):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월-금): 오전 7:30 토요일(토):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20 평일(월-금): 오전 7:30 주일학교: 오후 1:20 영어(월-금): 오전 9:20 영어(토): 오전 11:20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6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월-토): 오후 7:3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www.dkpc.org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금요일(월-금): 오전 7:30 수요일(월-금):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jccusa@yahoo.com / www.lajcc.com Tel: (323)915-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w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요교회 캠퍼스)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주요교회 본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월-금):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월-금): 오후 7:00 금요일(토):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j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월-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만부) 금요일(월-금):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 (310)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월-금): 오후 7:30 금요일(월-금):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월-금):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윤송 목사 (LA)영연합교회(합동목회) 상담사: (월-금) 오전 9:45(본당) 사역부: 1. 영성사역 2. 목회사역 3. 가정사역 4. 비전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안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월-금):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사제기도회: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j.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월-금):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종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월-금):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mp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월-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ny.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월-금):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후 7:00 수요일(월-금):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기독교 세계관이 진정 우선순위에 있는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사랑받는 인기그룹 크리스천 락 밴드 호크 넬슨의 리더 싱어인 조나단 스테인가드(Johnathan Steingard)가 2020년 5월에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과 젊은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스펠송 음반을 발매하면 40-50만장 정도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2009년에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테인가드는 목회자의 자녀로 집에서 기독교의 신앙과 삶을 배우

며 성장했습니다. 꾸준히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스테인가드는 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는지 두 가지 결정적인 배경을 밝힙니다: 교회의 진화론 거부와 2015년 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의 즐거움을 드러낼 수 없음. 스테인가드는 교회에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성 간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민을 하면서 지내오던 중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집에서 성경말씀을 읽는 중에 심대에 성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우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자신을 성폭력 당하도록 내버려두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스테인가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아버지인데, 자신은 결코 내 자녀들에게 불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행한 일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가드는 불행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스테인가드가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기 전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민을 찬양 사역하는 주변 친구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도 스테인가드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교회에서 자신들이 찬양사역을 할 수 없게 되고, 생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걸로 드러낼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최원영 작가는 최근에 '예수 할아버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최원영

씨는 '예수전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원영 씨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구별하여 사랑하는 제제하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스테인가드와 최원영 씨는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기독교의 가치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두 가치관과 세계관이 상충할 때 우선순위는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가치관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두 가치관들 사이에서 큰 충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가치관을 유지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주위의 식구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내적으로는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깊게 새겨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yosupbois@hotmail.com



KCMUSA 창립 18주년 기념 온라인 찬양제에 참가한 시라쿠스 한인교회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5개 주제로 나눠 총 15곡 공연 남주주한인음악가협회 주최 제12회 창작가곡의 밤

남주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최창경) 주최 제 12회 창작가곡의 밤 온라인콘서트가 3일 저녁 8시 유튜브라이브로 방송됐다. 이 창작가곡의 밤은 지난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콘서트로 진행됐다.

이날 △봄과 여름을 향한 노래 △비와 강을 향한 노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노래 △사랑을 위한 노래 라는 주제로 나눠 진행됐으며 소프라노 박진영, 이송은, 테너 박대열, 바리톤 김영민이 출연하고 이호준 이경미 선생이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표된 곡은 △유채국 발에서(이경희 작시, 지성심 작곡) △봄은 하늘 빛 음울을 타고(최명희 작시, 장민호 작곡) △서머타임(전희진 작시, 박계령 작곡) △가을(오영례 작시, 황현정 작곡) △만월(문인귀 작시, 이호준 작곡) △겨울 멜로디(이만구 작시, 박계령 작곡) △비 오는 날의 잔치(오연희 작시, 백낙금 작곡) △비가 오네(석정희 작시, 이호준 작곡) △입묵강(윤일홍 작시, 황현정 작곡) △달의 마음(석정희 작시, 이호준 작곡) △꽃밭(김수영 작시, Marianne Kim 작곡) △아름다운 나라를 위한 노래(정정숙 작시, 이혜경 작곡) △선물(이인미 작시, 백낙금 작곡) △내일은(고영준 작시, 권희원 작곡) 등 15곡이다.

(박준호 기자)



KCMUSA 창립 18주년 기념 온라인 찬양제에 참가한 시라쿠스 한인교회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

Virtual Choir 7개 팀 본선 진출

KCMUSA 창립18주년 기념 온라인 찬양제

재미한인기독교재단(이하 KCMUSA, 이사장 박희민 목사)은 재단창립 18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온라인 찬양제 Virtual Choir에 7개 팀이 진출했다.

대회운영분부는 예선 참가 7개 팀들이 모두 본선에서 한 번의 찬양곡을 더 준비해 본선 후에 결선 팀을 뽑기로 심사위원들의 중지를 모았다. 일곱 팀 모두 거룩한 경연

코로나팬데믹으로 시대 흐름에 걸맞는 온라인 찬양제를 준비한 KCMUSA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한인사회와 이민교회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대회

취지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Virtual Choir로 참가자격을 확대했지만 영상제작의 어려움으로 참가팀이 7개 팀에 그쳤다.



시온복음선교회 창립34주년행사가 맥아더파크 본선교회 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우측 타원은 본선교회 대표 글로리아김 선교사가 창립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는 모습

홈리스에 음식 나누고 감사예배 시온복음선교회 34주년 기념행사

시온복음선교회(대표 글로리아김 선교사) 34주년 기념행사가 3일 오전 7시30분 맥아더파크 오후 3시 센터에서 열렸다.

글로리아김 선교사는 "노숙자를 위한 케어센터 설립을 위해 준비해왔지만 공간과 문제로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노숙자를 위한 공동목욕탕 마련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며 "홈리스센터가 있는 곳에 공동목욕탕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글로리아김 선교사는 "시온복음선교회를 어머니와 함께 세운 지 34년이 됐다"며 "해마다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올해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해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됐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돼 예정된 행사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뜻있는 후원자들이 참여로 본선교회 숙원사업인 홈리스센터 건립이 완성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에 임하는 마음으로 본선 곡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찬양제 본선 참가팀의 찬양영상은 KCMUSA.org의 "KCM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30일 본선 영상 접수 마감, △11월 30일 결선 영상 접수 마감, △12월 10일 최종 당선팀 발표

본선(10월 7일 마감)에 진출한 팀들은 다음과 같다.

△갈보리교회(담임 왕태건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신안교회(브라질, 담임 문정숙 목사)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시라쿠스한인교회(담임 지용주 목사).

문의: (213)365-9188 kcmusa@kcmusa.org (기사제공: KCMUSA)

이날 행사는 오전 7시30분 맥아더파크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 나누는 사역을 했다.

별문트 애브뉴와 힐리웃 블러버드까지 이동하면서 노숙자들에게 빵 400개, 오렌지 2상자, 바나나 4상자, 스낵가게 30명분, 포도, 물 등을 나누는 후 오후 3시 본선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준호 기자)

안수집사 5명, 권사 2명 임직

선한청지기교회 설립 29주년 감사예배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 설립 29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10월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GS청지기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현상 장로가 기도했으며 GS청지기 찬양팀과 29명 신정인이 특송했다. 이어 김영봉 목사(와싱톤 사립교회 담임)가 '급진적 현대의 공동체'(마22: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CBMC 부에나파크 지회 창립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신앙 겸비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자 CBMC 부에나파크 지회 창립대회, 회장 스티븐 최

CBMC 부에나파크 지회 창립대회가 10일 오전 10시 예스 몬테소리(6621 Beach Blvd)에서 열렸다.

이번 창립대회는 지난 2019년 9월 열린 CBMC 모임에서 황선철 CBMC 총회장, 안진기 목사, 박영선 시의원, 최순자 원장, 빌리민 사장, 크리스안 사장, 스티븐 최 준비위원 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계획됐다.

안진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대회 1부 예배는 모종태 상임고

문이 기도하고 최해나 부회장이 성경봉독했다. 이어 한기형 목사(하늘 문교회, 우리기독교방송 사장)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자(장50:18-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목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요셉과 같은 실업자 공동체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2부 창립대회에서 임명된 스티븐



유니온교회 창립40주년 감사예배에서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

유니온교회 설립 40주년 기념예배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 설립 40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9월 27일 열렸다.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기념예배는 백문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당회원 일동이 특송했다. 이어 김신일 목사가 "그 40년 후(수:1:9, 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신일 목사는 "40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 에베에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예수 믿는 것이 아무리 오래됐어도 이쯤 되면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고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날 교회 향한 세상 사람들의 접수는 후하지 않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진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성도들의 삶은 만사행통으로 이뤄지지 않다. 광야와 산골짜기 비바람도 있다"며 "우리인생과 함께해온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다. 새시대 새역사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나라는 △첫째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의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거룩해지는 변화 등이 하나님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둘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하나님나라를 경험하는 곳이며 하나님나라를 드러내는 곳이다. 이 세상 어떤

최 회장은 "사업과 신앙을 겸비한 이름다운 꿈을 이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성취하기를 축원한다"라는 인사말에 이어 최해나 부회장의 경과보고와 미주한인 CBMC 총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황선철 총회장은 축사에서 "1980년 사카고에서 창립돼 우리 한국이 발전된 회원으로 우뚝 서있다. 오늘의 부에나파크지회 출발로 인해 주님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희 시모의 축하 특송에 이어 브라이언 정회장(OC상공회의소), Don Harbat(The Way Fellowship), 김근수 목사(OC목사회회장)가 축사했다.

그리고 강승태 회장(북가주연합회, CBMC총회 수석부회장), 이봉우 회장(남가주연합회, CBMC총회 부회장), 오윤호(서북부연합회, CBMC총회 부회장) 프랭크윤(외이특할 지회 회장) 등이 격려사를 하고 이산배, 신승수, 염창섭 씨가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창립대회는 김승엽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게서 모세와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소원이기도 나이가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근 원로목사는 "유니온교회 창립 40주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일"이라며 "미주 이민교회들 중 많은 교회들이 개척 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유니온교회는 이름 그대로 '유니온'을 잘해왔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교회가 정한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이라는 포어처럼 삼가기를 앞장서서 지겠다는 한신적 결단으로 교회개척을 주도했던 목사로서 감사도 감사드릴드린다"며 "유니온교회까지 구교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더욱더 도약하게 되기를 간곡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근 원로목사와 김홍기 집사가 공로패를 받았으며 이성우, 백문철, 김영준 원로장로가 감사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특별헌금 시간을 통해 걷은 헌금은 코로나19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교회들을 위한 선교회로 지출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결사체도 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선한청지기교회 29주년을 축하하며 "희망의 공간을 만들고 연약한 이를 품고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변화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송병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2부 야외 대면예배로 열린 임직식은 강인미, 손영미 집사가 권사로, 김기태, 김정현, 박은조, 석영, 성윤선 집사가 안수집사로 각각 임직했다. (박준호 기자)

교계 기사판

유태웅 목사 찬양 신곡 발표회

유태웅 목사(라이프라인미션 대표)의 찬양 신곡 발표회가 11월 1일(주일) 오후 4시 30분 “God or Nothing” 주제로 뉴욕 가나안침례교회에서 열린다. 코로나팬데믹으로 선착순 30명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출연진은 유태웅 목사 외 유진웅 교수(목관악기), 윤석중(피아노), 김희수(신디사이저), 한명재(드럼), 소재윤(베이스기타) 등이 출연한다. 사회 최수진 사모. 카톡(ID: nydanielson)으로 미리 신청해야 한다.

▲문의: (917)921-3310

담임목사 청빙

대흥장로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돼 있거나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정규신학대학원(M.Div.) 이상 학위취득자로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인 이중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자이며 미국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최근설교 동영상 2편, 자기소개서(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성경배경/가족소개와 가족사진), 추천인 3인의 추천서, 목사안수증,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이며 12월 15일까지 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application.dkpc@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한다(Word, PDF).

▲문의: application.dkpc@gmail.com

치매가족 돌봄 전략세미나

소망사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치매 환자들의 가족과 간병인들을 위한 ‘치매가족돌봄 전략세미나’를 10월 21일(수)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한다. 이달의 세미나 주제는 ‘성격과 행동 변화: 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며 소망사사이어티 임제인 간사가 진행한다. 11월에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10월 19일(월)까지 소망사사이어티 본부 혹은 이메일로 참가신청하면 된다.

▲문의: (562)977-4580, 이메일 somang@somangociety.org

은혜한인교회 무료독감예방접종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무료독감예방접종을 1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로비에서 실시한다.

▲문의: (714)417-2001

토랜스제일장로교회 VBS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Concrete & Cranes VBS 2020을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개최한다. 주제는 ‘Bulding on the Love of Jesus(빌1:6)’이다.

▲문의: (310)618-2222

차량간사 모집

LA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열매교회(담임 김요셉 목사)에서 차량 간사를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이며 이메일(yosup-bois@hot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213)344-9483

비영리단체설립 및 Tax Exempt 신청 무료강의

비영리 단체설립 및 Tax Exempt 신청 무료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ICMM,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17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church-homepage.org) 사이트에서 Zoom 화상 Conference 무료강의가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강사 제임스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담당). 강의 자료는 홈페이지 강의 신청 등록자에게 이메일로 무료 제공된다.

▲문의: icmm@churchhomepage.org, (714)393-4595(Center)



뉴욕목사회 증경단 및 임원연석회의가 거성식당에서 열렸다.

화해와 정부회장선거 준비

뉴욕목사회 증경단 및 임원연석회의

뉴욕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가 지난 10월 7일 오전 11시 증경단 및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거성 식당에서 열린 이날 회장 이준성 목사와 부회장 김진화 목사가 화해했다. 이준성 목사는 김진화 목사에게 공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김진화 목사가 사과함으로써 그동안 있어왔던 문제가 해결된 셈이 됐다.

단 김진화 목사가 약속한 후원금 1천 달러를 정기회회 공고 전까지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오전 후 모인 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제49회기 목사회 정기총

회는 11월 16일(월)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지난 7월 24일 임원회에서 결의한 김재호 목사의 사도신경거부 발언에 대한 답변을 9월 말까지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결의한 바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관련 세칙을 준비하기로 했으며 선거관리위원장: 정순원 목사. 선거관리위원: 신현택 목사, 이만호 목사, 이장종 목사, 임원 중 이기웅 목사, 박드보라 목사, 김희숙 목사, 박시훈 목사, 박종우 목사가 합류한다.

△정·부회장 후보등록비는 모두 3천 달러로 결의했다. (기사제공: 뉴욕목사회)

재정보고, 선관위, 신입회원 등 총회준비

뉴욕교협 46회기 마지막 3차 임실행위원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 46회기가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 마지막 3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회기 마무리와 정기총회 준비를 마쳤다.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열린 이날 회장 양민석 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회기동안 수고한 임원진에 대한 감사와 ‘할렐루야대회에 협력해준 회원교회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46회기는 2019년 11월 17일 취임예배를 시작으로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문석호 부회장을 선출했으며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부활절세백연합예배(동영상), 포스트팬데믹, 교회는 어떻게 가야하나? 세미나 및 6.25특별기도회, 예배 세미나 등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뉴욕교협 46회기 3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역시 온오프라인으로 2회의 세미나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한 거의 마이너스상태에서 출발한 재정도 45회기보다 많은 352,607.90달러를 지출했으나 12,87.32달러를 잔액으로 보고했다.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26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전 임원 유임, 101,000달러 예산통과

뉴욕청소년센터 이사회 제 26회 정기총회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산하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 이사회(이사장 송윤섭 장로) 제 26회 정기총회가 10월 8일 뉴욕교협 2층에서 열렸다.

임원선출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임원이 1년 더 유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사장 송윤섭 장로는 “코로나 사태로 후원금이 많이 감소된 가운데 할렐루야대회에 많은 성과를 내주신 황영송 목사님과 김준현 사무총장께 감사한다”며 “내년에는 더 큰 영향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예배를 드린 후 감사보고, 회계보고, 이사회보고, 프로그램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주영광 목사 인도로 김홍석 목사가 설교하고 황영송 목사 축도로 끝났다.

김홍석 목사는 “은혜 받은 사람”(행4:32-35)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본문은 초대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이라며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째,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연합 둘째, 나누는 사람 셋째, 소유권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하고 “청소년센터 사역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힘든 코로나시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의는 이사장 송윤섭 장로 사회로 박해용 장로 개회기도 후 시작됐다.

감사보고에서 김영철 목사는 수입 116,045달러, 총지출 73,621달러, 잔액 42,424달러

로 보고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가 회계보고를 했다. 2021년도 예산은 2020년과 동일한 101,000달러로 세웠다. 특이한 점은 지출예산 6천 달러가 SNS 라이브로 명시돼 있다.

황영송 대표는 “2020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효과를 확인하고, 온라인라이브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지금 시작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뉴욕만 아니라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위임으로 그들의 스마티폰으로 찾아가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영어권 차세대 사역자들을 초청해 매달 1회 30분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광고 후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는 현장참여는 적었지만 2일간 유튜브 조회수 1,300을 기록했다.

청소년센터는 지난 회기에 △성정체성 세미나 △미래직업 워크숍 △A. R.버나드 목사

와 황영송 목사와의 대담 △뉴욕블레스 참여 △할렐루야대회를 치렀으며 팬데믹으로 예정됐던 농구대회, 목회자커피런스, 청소년 후원음악회 등을 하지 못했다.

청소년센터는 교회와 기관, 이사회회, 음악회 등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뉴욕교협은 이번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에 1만 달러를 후원했다.

(유원정 기자)

이준희, 이태신 강도사 2명 합격

예장(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목사고시 실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2020년 목사고시가 지난 10월 8일 뉴욕만나교회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됐다.

이번 목사고시 응시자는 이준희 강도사, 이태신(Kevin Lee) 강도사 2명으로 모두 뉴욕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부는 뉴욕노회 정대영 목사(노회 고시부장)의 기도와 말씀(벧전 4장 7-11절)을 증거하

였다. 2부는 고시위원회가 준비한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등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3부는 구두시험으로 심사위원은 김종태 목사(노회장), 정대영 목사(노회 고시부장), 한상홍 목사(총회 고시부 서기), 이민철 목사(노회 고시부 서기)였다.

목사 임직식은 10월 13일 제 87회 뉴욕노회에서 거행된다.

(기사제공: 해외총회 뉴욕노회)

(PCA)와 뉴욕기독교교회 고성민 목사(기감)는 총회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마바울 목사 인도로 기도 이기웅 목사,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이만호 목사, 합심(통성)기도 김신영 목사(뉴욕교계와 차세대를 위해) 유승례 목사(46회 성 총회를 위해), 축도 김원기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증경회장 이만호 목사는 “생기 운동”(겔37:1-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 수 있다. △영적 생기의 능력을 잃으면 소망이 없어진다”며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생기운동을 펼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격려했다.

한편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참석할 총대(목회자 1명, 평신도대표 1명)는 20일까지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이메일 nyckcg@gmail.com이나 (718)279-1414로 전화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회계 이광도 장로는 “팬데믹 상황임에도 이월금을 많이 남긴 것에 감사한다”며 “회장과 임원들의 긴축재정 결과”라고 보고했다.

이날 선관위의 정부회장 후보 소개와 함께, 후보관련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19일까지 교협선관위로 연락해달라고 밝혔다.

신입회원으로 가입 신청한 뉴욕광명교회 구자범 목사

로 보고했다.



뉴욕교협 47회기 정부회장 후보 기자회견을 마치고 후보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김요셉 목사, 문석호 목사, 백달영 장로, 김희복 목사.

팬데믹 여전 교협운영 어떻게...

뉴욕교협 47회기 정부회장 후보 기자회견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 46회기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정부회장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기자회견에서 유례없는 설전이 오갔다.

지난 9일 오전 10시30분 뉴욕교협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회장후보 현 부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부회장 후보 김요셉 목사(예수생명교회),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 평신도부회장 후보 백달영 장로(퀸즈한인교회)가 자리했다.

한재홍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각 후보들의 출마소견이 있는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석호 목사는 “46년 전통을 이어가며 새 환경에 적합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소견서에서 1)지금까지와 다른 상황 하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2)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3)종말의 시대에도 복음의 실천적 삶과 선교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4)진리의 복음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이사장(김영호 이사장 자진사퇴)으로 자동후보가 된 백달영 장로는 “하나님께서 교계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회장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순종하며 잘 하겠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호 1번 김요셉 목사는 “교협의 전통을 살리며 실속 있는 교협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

다”며 “일하는 교협, ‘자랑스러운 교협’, ‘함께하는 교협’을 소견서에 적었다.

기호 2번 김희복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으로 팬데믹 하에서 교협의 활동을 칭찬하고 “교협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교협을 위해 기도’하고 ‘차세대와 소통하며 비전 심기’ ‘전 예수생명교회’,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 평신도부회장 후보 백달영 장로(퀸즈한인교회)가 자리했다.

한재홍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각 후보들의 출마소견이 있는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석호 목사는 “46년 전통을 이어가며 새 환경에 적합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소견서에서 1)지금까지와 다른 상황 하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2)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3)종말의 시대에도 복음의 실천적 삶과 선교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4)진리의 복음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이사장(김영호 이사장 자진사퇴)으로 자동후보가 된 백달영 장로는 “하나님께서 교계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회장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순종하며 잘 하겠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호 1번 김요셉 목사는 “교협의 전통을 살리며 실속 있는 교협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

다”며 “일하는 교협, ‘자랑스러운 교협’, ‘함께하는 교협’을 소견서에 적었다.

기호 2번 김희복 목사는 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장으로 팬데믹 하에서 교협의 활동을 칭찬하고 “교협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교협을 위해 기도’하고 ‘차세대와 소통하며 비전 심기’ ‘전 예수생명교회’,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 평신도부회장 후보 백달영 장로(퀸즈한인교회)가 자리했다.

한재홍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각 후보들의 출마소견이 있는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석호 목사는 “46년 전통을 이어가며 새 환경에 적합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소견서에서 1)지금까지와 다른 상황 하에서 교회의 본질을 지키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2)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3)종말의 시대에도 복음의 실천적 삶과 선교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4)진리의 복음정신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이사장(김영호 이사장 자진사퇴)으로 자동후보가 된 백달영 장로는 “하나님께서 교계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회장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순종하며 잘 하겠다.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호 1번 김요셉 목사는 “교협의 전통을 살리며 실속 있는 교협을 만들고자 출마하게 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2020년 목사고시가 뉴욕만나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3)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6. 미국 청교도들의 신앙(信仰)과 삶, 그리고 성화(聖化)

1)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Great Awakening Revival)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부흥(復興)의 시기(時期)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 없이 있어왔다. 1740년의 미국 제 1차 대각성 운동(The First Great Awakening), 웨슬리(John Wesley, 1703.6.28-1791.3.2)의 복음주의 부흥운동, 찰스 피니(Charles Grandison Finney, 1792. 8.29-1875.8.16)로 대변되는 2차 부흥운동, 19세기말의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2.5.-1899.12.22) 부흥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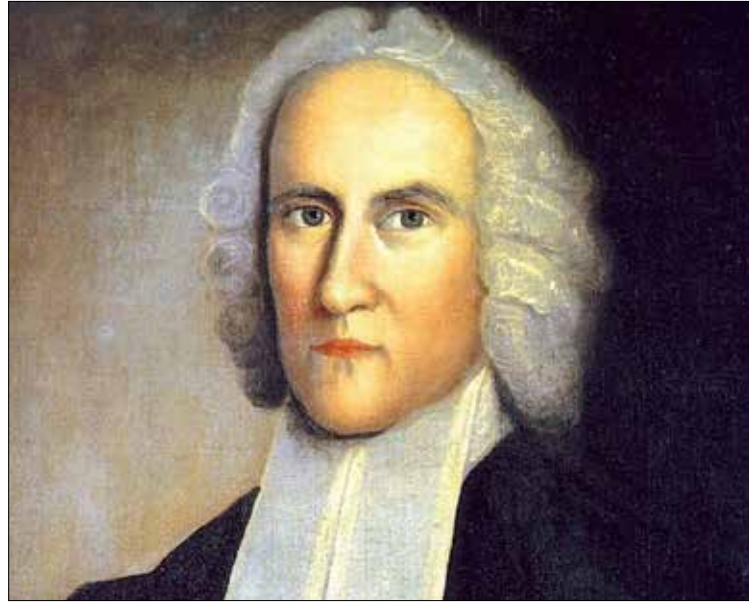
그리고 20세기 초 대표적 부흥운동은 1904년 영국의 웨일스 부흥운동(The Welsh Revival), 1905년 인도 카시아(Khasia) 지방의 부흥운동, 1906년의 미국 아주사 사거리(Azusa street) 부흥운동, 1907년에는 한국 평양대부흥운동, 1909년의 백만인 구령(救靈) 운동이 있다.

부흥(Revival)의 정의(定義)를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령(聖靈)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體驗)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일차적으로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지체(肢體)들을 통해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신자(信者)들의 부흥입니다. 생

명(生命)이 없던 것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합니다. 따라서 부흥이란 일차적으로 나쁜데서 잠들어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을 깨워 활기 있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저 머리로만 믿던 진리를 새롭게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부흥(復興)의 주요한 두 가지 특징(特徵)은 첫째, 교회 지체(肢體)들이 이처럼 특이하게 새로운 생명(生命)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과 둘째, 이제까지 교회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悔心)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Jonathan Edwards)의 고백(告白)대로 부흥운동은 결코 인간적(人間的)인 어떤 노력(努力)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1908년 7월 부흥의 현장을 처음부터 목도한 한 선교사는 당시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대부흥 운동이 웨일스 부흥운동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성령의 임재”로 특징되는 영적 각성운동임을 분명히 했다. 미



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영국의 부흥사인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와 동역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悔心)하게 되었고, 30여개나 되는 신앙 조직이 신

청교도 목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1740년 제1차 대각성운동의 주역 부흥은 말씀과 성령의 통치에 의한 철저한 회개와 기도로 이뤄져

다. 왜냐하면 에드윈(Edwin)이 지적한 대로 복음주의 영적 각성(覺醒)운동은 “그리스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主權的)인 은혜(恩惠)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어느 곳에서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悔改)와 통회(痛悔) 가운데 가뭇어 메마른 땅이 봄비를 기다리듯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사모(思慕)하는 곳에 나타난다. 부흥운동이 기도(祈禱)와 성령의 임재(臨在)로 특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지체(肢體)들을 통해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신자(信者)들의 부흥입니다. 생

국의 마지막 청교도(淸敎徒) 목사인 제 1차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의 주역(主役)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0.5-1758.3.22)는 존 웨슬리처럼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은 인물이다. 그는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했고,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로서, 최고의 설교자, 그리고 많은 저술을 통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유능한 개혁(改革) 신학자(神學者)이다.

1729년 에드워즈가 노스햄턴(Northampton) 교회의 목회자가 된 후 그의 청교도적 설교에 의해 마을 전체가 신앙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계기가 되어 미국에 1차 영적 대각성 운

설되었다.

또한 1720년 초부터 프렐링하이젠(Theodorus Frelinghuysen, 1691-1747)이 화란 교회를 중심으로 뉴저지 지역 부흥을 주도 했고, 장로교에 부흥의 물결을 트게 한 사람은 길버트 테넌트(Gilbert Tennent)였다. 길버트 테넌트를 비롯한 Log College 출신들 역시 미국의 1차 대각성운동에서 큰 역할을 감당(堪當)했다.

에드워즈는 1734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義)”에 대한 그의 설교는 코네티컷 리버 벨리(Connecticut River Valley) 지역에 영적 부흥을 가져왔고, 1740년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철저한 칼빈주의(Calvinism)자인 에드워즈는 원죄, 예정론,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의 가장 유명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이란 설교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서 맞이하게 될 운명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그의 엄격한 중생관은 유아세례자의 성찬식 참여 문제로 인해 교회 임원들과 갈등을 일으켜 24년간 사역해온 교회에서 나와야만 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대각성 운동의 결과,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 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각성 운동은 미국 해안 지방에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심었다. 특별히 에드워즈는 청교도들의 비성경적 치명적(致命的)인 과오(過誤, Peccability)라고 할 수 있는 노예제도에 반대(反對) 운동을 계속하였고, 더 불어 큰 빛(?)을 쬐던 인디언들에 대한 선교(宣敎)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는 1750년부터 6년간 사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와 함께 인디언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에드워즈는 29세에 별세한 사위의 선교행전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The Life of David Brainerd)란 제목으로 출판한다. 바로 이 책을 통해 18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와 헨리 마틴(Henry Martin)이 회심하여 인도 선교사로, 짐 엘리엇(Jim Elliot) 선교사 등...; 선교의 대가(大家)들이 브레이너드의 영향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獻身)했다.

이와 같이 뉴잉글랜드(New England) 제 1차 청교도 대각성 부흥운동은 30만 인구의 뉴잉글랜드에 부흥운동이 한창이던 해인 1730년대 말 2년 동안 약 25,000명이던 교인은 약 50,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선교열정, 인류애, 교파간의 협력, 특히 교육(敎育) 부문에서도 지대(至大)한 공헌(貢獻)을

했다. 프린스턴, 펜실베이니아, 브라운 대학 등은 대각성 부흥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학교들 중 일부이다. 또한 대각성 부흥운동은 교파(敎派)의 벽을 허물고 관용(寬容)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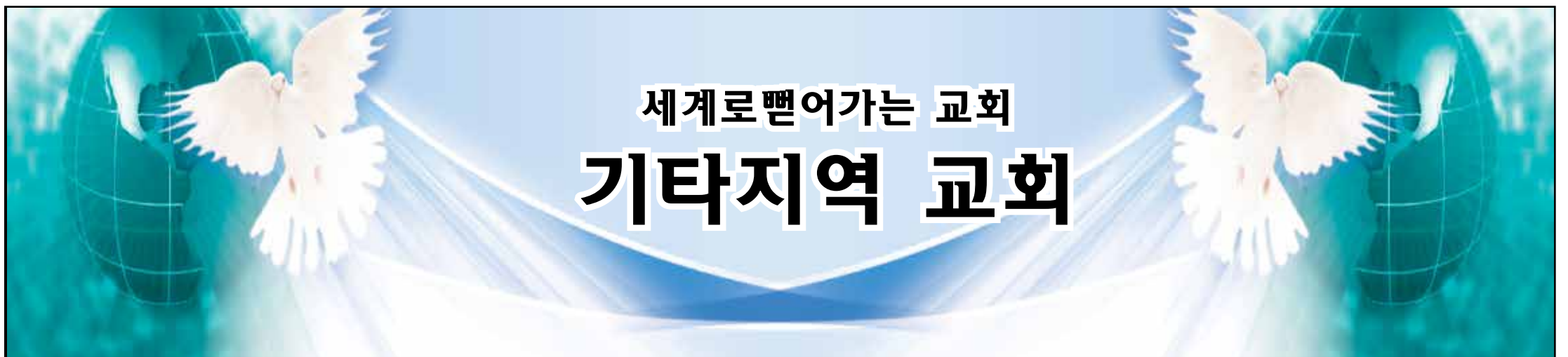
기독교회사(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의 저자 윌리스턴 워커(Williston Walker, 1860-1922)는 “문화적 혼란(混亂)의 와중에서 발생한 이 대각성(大覺醒) 운동은 미국의 교회생활에 막대한 충격(衝擊)을 주었다”라고 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혼란(混亂)의 시대에 진리(眞理)의 횡보를 밝히려며 의 길을 열어준 영적(靈的) 지도자(指導者)였다.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에베레스트에 비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로이드 존스). “청교도주의는 곧 조나단 에드워드 자신이다”(페리 밀러).

2020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시대 상황(狀況) 속에 교인들의 신앙이 황폐화(荒廢化)되어 대각성 부흥운동이 너무도 절실(切實)한 미주한인교회는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그 자신의 노력(努力)과 능력(能力)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聖靈)에 의한 강권적(強勸的) 하나님의 역사(役事)”라고 증언(證言)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말에 주목(注目)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수행하실 때, 그 행하신 이적(異跡)과 능력(能力)이 자신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기...(행 10:38) 때문이다”. 라고 증언한 누가(Luke)의 고백(告白)처럼 역사적 사실(事實)로 확실히 증명(證明)됐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統治)에 의한 철저한 회개(悔改)와 통회(痛悔), 부르짖는 기도(祈禱, 렘33:3, 슥 4:6)를 할 때, 성령님의 임재(臨在)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즉 대각성(大覺醒) 부흥(復興)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확신(確信)한다.

kimjoyh@hotmail.com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세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전양): 오후 1:45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 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 아, 유년, 유년: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o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3)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비), (254)5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4)560-7500, www.jjk.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수요일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대면예배 12일부터 재개... “아쉽지만 다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소모임·행사·식사는 금지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로 12일 0시부터 대면예배가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교회들은 새벽기도회 등 현장예배 재개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일부나마 현장예배의 물꼬를 튼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대면예배의 단계적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1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논평으로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방역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맞먹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교회는 교회의 목표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교총은 또 현장예배를 지키

기 위해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하는 한편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13차까지 발표한 코로나19 교회대응지침을 보강해 곧 14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교총 교단장 면담 이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가 상시 협의가 지속돼 왔다”면서 “예배 인원 단계적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주일인 이날 모든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제한적 참여 예배로 진행했다. 교회 측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신청한 성도들을 1만2000석 규모의 대성전을 비롯한 22개의 부속 성전에 분산 배치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교회 측 안내 봉사자들은 성도들의 등록증과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2m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예배당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영훈牧사는 이날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방역수칙이 완화돼 다음 주일 예배가 일부 회복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牧사는 “다음 주부터 예배당 좌석 수 30% 정도의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열이 나거나 기침 잦은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운영 중인 130여개 기도처와 지성전의 문을 모두 열어 목이 불편하거나 교통편 이용이 어려운 성도들이 각 지역에 분산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첫날인 12일부터 모든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다. 단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를 위해 사전 예약자만 예배당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온누리교회의 예배참석 예약 시스템은 성도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교회로부터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예약하는 방식이다.

지 허용한다는 203% 임신 초반부인 10주까지 허용은 187%로 나왔다.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다.

전국 174명의 여성수로 구성된 ‘낙태죄 개정안 반대 여성교수 모임’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장하며 책임의식의 부재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임신으로 생장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은 “낙태죄 개정안은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장은 “생명운동가들은 모든 주수의 낙태를 반대하지만, 태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10주 이내라도 낙태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교계가 생명을 지키는 법안과 운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측은 이 대표에게 행사장 대관 승인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 관여했고, 승인이 불허된 후 이 교수 등에 어떤 사실을 직접 알렸는지 등을 물었다. 이 대표는 HWPL 측 관계자로부터 행사장 대관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을 받고 도와준 정도라며 대관 승인을 놓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신천지 측의 위장 평화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2015년 9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을 불법 점거한 후 개최한 ‘중교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에 이 교주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개최 당시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대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이유도 따졌다.

신천지 측 증인으로는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 등 4명이 나왔다.

애족장을 받았다. 지난해 한남인문문화상은 미국 장로교일본선교회 대표 빌 무어선교사가 수상했다.

2016년에는 평화와 정의, 환경운동에 앞장선 미국장로교 소속 ‘스토니포인트센터’가 수상했다.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 서경운 전 장로회 신학대 총장, 대전천 신부 등도 이상수상자이다.

한남인문문화상 추천 접수 및 문의는 한남대 인문학술원(042-629-7929)으로 하면 된다.

기감 새 감독회장에 이철 목사 당선

‘갈라진 틈 메우는 다리 되겠다’ 화합위해 소통위 설치

이철(66·강릉중앙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4회 총회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4년으로 2024년 10월 총회 때까지 감독회장직을 수행한다.

이목사는 12일 치러진 선거에서 4604표를 얻어 감독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영진(은천교회)목사는 1138표, 박인환(화정교회)목사는 2265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223표다. 선거인단 1만8명(목회자 5092명, 평신도 4916명) 중 823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2.2%를 기록했다.

목원대와 미국 노스파크신학대를 졸업한 이목사는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감 동부연회 감독과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일보목회자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갈라진 틈을 메우는 다리가 되겠다’는 가치를 내건 이목사는 ‘평신도 사역 전문화’ ‘감리회 조직개편’ ‘감독회장 권한 분산’ ‘지속가능한 미래 감리회 설계’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목사는 당선 직후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감리회 가 긴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갈들이 계속되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된다”면서 “화합과 화해, 회복을 위한 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회 감독 선거도 마무리됐다. 서울연회와 서울남연회 감독에는 각각 이광호(도봉교회) 김정석(광림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중부연회 동부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호남특별연회

감독에는 정연수(효성중앙교회) 양명환(황성교회) 강관중(갈마교회) 유병권(천안남산교회) 박용호(영생교회)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연회 감독 선거에 단독 출마한 경기연회 중앙연회 충북연회 삼남연회의 하근수(동탄시온교회) 최종호(광주교회) 안정균(제천제일교회) 황병원(남문교회) 목사는 투표 없이 당선 확정됐다. 기감은 단독 출마자에 대한 찬반 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 연회는 감독회장 선거만 진행했다. 미주연회는 지난 8월 12일 온라인 선거를 통해 임승호 미국 남가주빌라델비아교회 목사를 감독에 선출했다.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29-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감독회장과 감독 당선자들만 한자리에 모여 취임식을 갖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여성 목사·장로직 안수 허용”

고신, 네덜란드개혁교회와 관계 단절 고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이 해외 자매 교단인 네덜란드개혁교회와의 관계 단절을 고려 중이다. 네덜란드개혁교회 가 올 총회에서 여성에게 목사·장로·집사직 안수를 최종 허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 고신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신 측 관계자는 6일 “고신을 비롯한 자매 교단 소속 많은 교회의 재고 요청에도 네덜란드개혁교회가 여성 안수를 최종 확정했다”며 “관계 단절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신은 1967년부터 네덜란드개혁교회와 자매 관계다. 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기한 연기된 정책 총회 때 이 부분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개혁교회는 3년마다 열리는 2017년 총회에서 여성에게도 모든 직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고신 측은 이듬해 총회에서 “네덜란드개혁교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변질되면서 여성 안수를 허용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전자투표 절차 하자 없다”

법원 ‘기성총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대한기독교성결교회(기성·총회장 한기제)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 임원단이 전자투표 시행 및 절차 하자(흠)가 있다며 총무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경환)는 지난달 24

일 설봉식 목사가 지난 7월 21일 기성 총회를 상대로 청구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선거 절차에 문제가 없어 무효로 보기 어렵고, 만약 전자투표 절차상 하자로 총무 선거가 무효라면 총무 선거뿐 아니라 모든 임원 선거도 무효라는 판단이다.

케냐 중·고교과정에서 ‘이단’ 기쁜소식선교회 교육

IFY 마인드교육 1년 시범 운영...전문가 “포교연장선” 우려

아프리카 케냐의 정규 중·고교 교육과정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된 기쁜소식선교회(대표 박옥수)의 마인드 교육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현대종교(소장 탁지원)에 따르면 기쁜소식선교회 관계기관인 국제청소년연맹(IFY)은 지난 4일 케냐 청소년부·교육부와 협력해 1년간 시범학교를 선정해 마인드 교육을 운영한 후 이를 전국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FY 측은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마인드 교육이 마약 중독, 폭력, 미혼모 등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결국 포교의 연장선이며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과정에 이단 교리를 담아 전파하려는 목적이 큰 만큼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7일 “이단들은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교리 포교를 하기가 어려워 우선 관 계성 형성에 초점을 두고다가는 전략을 쓴다”면서 “다음세대 교육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현 지 정치계, 학계, 청소년 단체에 먼저 심어주며 후회적 관계를 형성한 뒤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협회장은 “국내에서 심리상담 등을 내세워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나가 경제적 지원

을 내세워 일단 사람을 모은 뒤 교리를 전파하려는 것”이라며 “정보 없는 해외에선 이단인지도 모르고 빠져들 우려가 큰 만큼 현지 선교사들에게 이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이단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FY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탁 교수는 “이단 문제를 현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대처하도록 돕는 한국교회의 대표 기관이나 단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현지 선교사들은 말한다”면서 “일단은 각 교단 차원에서 선교사 훈련과정에 해외 진출 이단들의 동향과 포교전략, 대처 방안을 교육하고 현지에선 주교교적으로 지역 선교 사회가 연합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했다. 이는 한 교주가 문선명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로 명시해 자신의 활동이 곧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여자 메시아 교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게다가 문선명 사후 갈 곳을 잃은 고위 간부들도 한 교주의 독생녀 교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한 교주 체제가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차장은 “한 교주의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교리상으로 그에 대한 신격화가 완성됐다”면서 “그래도 문선명 없이는 한 교주의 독생녀 교리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교는 한 교주 중심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문선명은 상징적 인물로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천지 교주 첫 공판 ‘모르쇠’ 일관

황체어타고 법정선 이만희 ‘혐의 전면 부인’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가 재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교주 등 신천지 관계자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이 기소된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이다.

백발의 이 교주는 피판석 수의를 입고 황체어를 단 채 법정에서 출석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자 이 교주는 변호사가 보여주는 노트북 화면 속 공소장을 유심히 바라봤다. 공소장 확인 후 김미경 부장판사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가”라고 묻자, 이 교주는 또렷한 목소리로 “네”하고 답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재판부는 이후 신천지 측의 위장 평화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2015년 9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을 불법 점거한 후 개최한 ‘중교통합 만국회의 1주년 기념행사’에 이 교주가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개최 당시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대관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이유도 따졌다.

신천지 측 증인으로는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 등 4명이 나왔다.

선교·교육·사회봉사에 귀감 인물·단체 추천

한남대 내달 6일까지 제26회 한남인문문화상 후보 접수

한남대학교는 제26회 한남인문문화상 후보 추천을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남인문문화상은 한남대(전 숭전대) 설립위원장과 초대 총장을 지낸 윌리엄 린튼(한국명 인문·사진)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남대가 1994년 제정했다.

이 상은 기독교 선교·교육·사회봉사에 귀감이 되는 인물이나 단체

에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인문 박사는 1912년부터 1960년까지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사로 활동했다.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기여했고, 3·1운동 당시 자유와 정의를 향한 한국의 독립운동을 미국 사회에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독립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건국훈장

선교의 창 (15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십자가의 정신이 담긴 “빠레그레나찌오” 서약

지금쯤은 참으로 어려운 때이다. 인류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상가상으로 산불, 태풍, 홍수, 지진 등이 속출하고 많은 인재사고(人災事故)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다. 민심은 흉흉해져 가며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들은 더욱 이웃을 경계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선교현장은 오죽이나 힘들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도무문(大道無門)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한 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선교든 목회든 아니 그 어떤 일이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어두움에 우겨 씬을 당하여도 늘 경성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십자가가 답이다.

1. 십자가에 대한 존 스토틀(John R.W. Stott)목사의 해석

십자가는 기독교의 낱아버린 전통적 문양이 아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가교이다. 그것은 친구약을 하나로 묶어주며 기독교의 신앙적 상징뿐 아니라 삶의 지침이다. 십자가는 신앙사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축인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독점적인 표지이며 기독교 지침의 상징이다. 그리

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왜 우리의 사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지 않는가? 사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반항,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 사이의 필연적인 충돌에 의하여 야기된다. 우리의 죄와 죄책만의 사죄의 장애가 아니다. 죄책을 짊어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대응 또한

장애물이다. 이러한 양대 장애물은 십자가를 통하여 해소되었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죄를 폭로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취는 4가지로 압축된다.

△성전에서의 의식의 의미로 화목(propitiation)이다. △시장에서의 상거래를 통한 의미의 구속(redemption)이다. △법정에서의 사용되어지는 의미의 칭의(justification)이다. △가정 혹은 가족 속에서의 의미인 화해(reconciliation)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성취는 곧 구원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사랑의 완전함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다.

2. 십자가 정신을 실현한 켈트족 수도사들

신을 아는 제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는 것을 약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의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신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윗 내용은 아일랜드 켈트족(Celtic)의 축복 기도문이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5-7세기 켈트족 수도사들은 유럽 대륙에 기독교 전파를 가져온 해외선교의 선두주자였다. 그들은 선교사로 떠날 때 “빠레그레나찌오”라는 서약을 했다. 그러면 마치 프랑스 국기와 모양이 비슷한 3가지 색으로 된 조그만 깃발을 달아주었다. 그 의미는 자기 인생 가운데 3가지 버릴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내 용인즉, “첫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한다. 둘째는 나에게 익숙한 고국/문화/환경을 포기한다. 셋째는 나에게 편안한 모든 미래를 포기한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희생

3.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사역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됨을 포기하고 하나의 제물로 바쳐졌다. 현대 우리는 십자가의 상징인 희생과 포기보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부귀영화를 얻으려 한다. 코람데오! 모름지기 구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 한다. 잔피나 계산을 앞세우면 안 된다. 목회든 선교든 자칫하며 중심을 잃고 과업 지향적이 되기 쉽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며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인간이 앞서고 십자가의 주님은 뒷전이 된다. 더 많이, 더 높고, 더 크게! 그러면 인간의 찬사와 박수가 터진다. 십자가의 주님 없는 사역은 한낱 인간의 비즈니스와 다를 바 없다.

단기간에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바벨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런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십자가는 자기희생이

은 없다.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목회와 선교현장 가운데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의 가슴속에 십자가가 빨갛게 불타고 있는가? 그렇다면 교회가 정화될 것이다. 선교현장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맺는 말

지난 2천년간 교회역사를 돌아보면 선교는 철저히 대가를 요구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연히 아무데서나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곳에서 역사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지만 절절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셨다. 초대교회 역사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 부흥 성장했다. 위의 언급한 켈트족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근세 이름 있는 선교사들은 모두가 자기희생을 했다. 일제 시대 민족의 선각자들이나 현대의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草芥)같이 바쳤다. 그 이면에는 가족을 돌아보지 못한 눈물 나는 사연이 있다. 그 신앙은 결코 어떤 것에도 대치할 수 없는 순명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불타는 신앙고백과 희생은 참으로 숭고한 것이었다. 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신앙이 오늘 COVID19로 힘들어 하는 선교현장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다.

20세기 상반기에 ‘강해설교의 제왕’으로 평가받은 영국의 캠퐀 물간(Campbell Morgan)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고 있는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빠레그레나찌오”적 희생을 하고 있는가? 선교는 십자가이다.

jrson007@hanmail.net

“빠레그레나찌오”란 켈트족 중 선교사로 부름 받은 자의 서약이다. 이는 주님나라를 위해 가족, 환경, 미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100마디 말보다 저들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정신으로 무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의 북서쪽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빠레그레나찌오”의 놀라운 위력이 었다.

성령의 역사는 그저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를 태워서 죽이는 ‘심지’가 필요하다. 켈트족 중 부름 받은 선교사들은 자기를 산화하는 하나의 심지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놀랍게 사용하셨다.

며 포기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의 좌표이며 모든 영역에 중심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이며 성화되는 수단이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 할 주제이며 자랑할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시각을 항상 십자가의 주님께 맞추어야 한다.

십자가는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십자가 없는 선교와 목회는 요란한 소리만 날 뿐이다. 그곳에는 화려하지않은 생명의 태동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한 두 개의 동전이 남아 있기를/ 당신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

드라마 예언서 (9)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서의 배경

저자인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며 구시의 아들로 왕족 출신으로서 남방 유다의 요시아 왕(BC 640-609)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습1:1). 스바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는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이가 있습니다(렐1:2).

스바냐서의 기록연대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의 위상소멸을 강하게 질책하신 것으로 보아,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습1:4-6, 8-9). 또한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보아(습2:13) 본서의 기록연대는 대략 BC 63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도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스바냐서 전반부는 습1:2-3:8까지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 습3:9-20까지는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내용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내용

‘심판하시나’(습1:2-3:8) 내가(여호와와 하나님) 땅 위

스바냐서: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과 동시대 요시아왕 때 선지자

1:2-3:8-심판하신다, 3:9-20-돌이키면 구원하신다

의 모든 것을 심판하여 멸절할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함께 악인들을 멸절할 것이다(습1:2-3).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니 멸절시키시려는 이유는 ‘위상소멸’과 거짓 예배 때문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멸절하고, 그마립이란 이름과 그들을 제사하던 제사장들을 다 멸절할 것이다. 피조물에 불과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게 경배하는 자를 멸절할 것이며, 나에게 맹세하면서(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말감도 섬기며 나를 배반하고 좃지 아니한 자들을

모라 같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을 휘방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습2:8-11). 구스와 앗수르를 멸하고,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습2:13-15).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과 역사의 진짜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전염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라.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이방 여러 나라들의 행위를 따르며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을 볼 것이다(습3:5-8).

‘심판의 그 날은’(습1:7-18) 그 심판의 날(여호와와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며, 그 날은 나 여호와와 희생의 제물을 잡는 날이다(습1:7-8). 그 날에는 폭력과 속임수를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겠고,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산 위의 마

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습1:9-10). 그 날은 생각보다 빨리 임할 것이다. 그 날은 내가 분노하는 날이다. 그 날은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이며,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그 날은 나팔이 울리는 날이며,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이다.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이며,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습1:14-16).

내가 사람들을 고통케 할 것이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눈먼 자들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은과 금으로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다. 내가 분노하는 날, 온 땅을 다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릴 것이다(습1:17-18).

‘그러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습3:9-20)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이 돌이키면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 나는 사람들의 입술을 정결케 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습3:9). 내가 흘렸던 내 백성들이 구스 강들 너머에서부터 제물을 들고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게 될 것이

‘그러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습3:9-20)

다. 돌아온 그들은 두 번 다시는 나의 거룩한 언덕에서 거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도시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습3:10-11).

그러나 나는 너희를 가운데에 겸손한 이들을 남겨두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말도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습3:12-13).

구원을 받은 그들은 이렇게 노래 할 것입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하며 이스라엘아 기쁘게 찬송을 할 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우리의 대적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습3:14-15). 그 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습3:17). 그 때에 나는 너를 억압하는 모든 자들을 다 벌하며 흠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죄욕을 당한 그 곳에서 칭찬할 것이고 명예롭게 해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온 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너희에게 명예와 칭찬을 줄 것이다(습3:18-20).

다음 시간을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열방을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시2:1-4)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은 창조 이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헛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강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에는 3가지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1)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

해서 희망 받는 분이 아니시다. 2)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악한 음모를 다 알고 계신다. 3)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담대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이 그대로 이뤄집니다. 믿고 기도하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시2:4-6)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일은 그 어떤 반대와 훼방에도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세우기 위해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바벨론에게 잠시 맡겨놓았더니 바벨론은 성도들을 성전을 불태우고 거룩한 기물을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며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두려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

께서 웃으시면서 천명의 귀인이 모여 잔치하는 자리에서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을 쓰시므로 벨사살 왕이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의 나라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벨사살로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뤄지니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2:7-9)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에서 "영"은 "약속된 법령",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칙령", 신학적 용어로는 "작정"을 의미합니다. 그 작정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하신 독생자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일체이시며 그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목 예수님께 돌아오라(시2:10-12)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만이 영원히 살길임을 보여주었고 있습니다. 10절 "그러즉"은 "그러므로 지금 당장"이란 뜻입니다. 지금 당장 지혜와 교훈의 말씀을 받고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교훈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1)이제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곳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2)이제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화해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화해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더 놀라운 은총이 넘칠지 줄 믿습니다.

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시3:1-4)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암살품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 시가 쓰여진 시기와 시대적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삼하15:30). 오늘 신실한 성도도 이 땅에서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상은 성도를 더 더욱 의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3편

을 보면 역경을 통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대적은 시시때때로 나의 영혼을 공격해 낙심시키려함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1, 2절을 보면 영혼의 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대적들도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손대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토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시3:1-4)

삼하16장에 보면 다윗이 급히 울며 피신하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합니다. 군대장관 아비새가 당장 시므이를 죽이려 하니 다윗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에 다윗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들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3, 4절에 보면 "여호와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간절히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알기쉬운 IT칼럼

크롬의 Webstore를 활용하세요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치과에 가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치료를 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오늘은 아프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매번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치료가 이루어짐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 외에는 나는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늘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남이 하는 일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10가지 일중 하나가 내 생각대로 되면 '거 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하며 거만을 뽐니다. 하지만 안 된 9개의 일에 대한 아무 말도 없습니다. 즉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얼마 전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앰블런스와 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먼저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던 택시 기사처럼 말합니다. 나에게도 엄하고 타인에게도 관대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처럼 크롬에는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Webstore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크롬에서 바로 사용하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동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크롬을 통해 google.com으로 들어갑니

다. 화면 왼쪽 위에 App이 보일 것입니다. App을 누릅니다. Webstore를 누릅니다. 이곳이 Utility Program을 구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좋은, 그리고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컴퓨터의 진정한 고수들입니다.

컴퓨터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스피커 소리가 작은 경우 볼륨을 600% 높여주는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웹스토어 검색에서 Volume이라고 입력하면 나옵니다. 우측의 크롬에 추가(Add to Chrome)를 누르면 상단바에 아이콘이 나올 겁니다. 유틸리티를 동작하려면 이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쉽지요? 이렇게 원하는 유틸리티를 찾아 등록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뜨는 광고를 제거하려면 Add block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이 Add block을 해제하거나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기능을 Off하면 됩니다.

여기를 뒤져보면 보물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노트앱 중 최고는 Evernote입니다. 물론 제대로 사용하려면 유료버전을 사용해야 하지만 무료로 사용해서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Evernote를 검색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알려드린 Google Keep이라는 메모앱도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해보고 아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아주 쉬우니 꼭 해보세요.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시도 해 보느냐 아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나중에 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가장 버려야 할 단어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나는 일 많이 경험하시길...
siyoon7231@gmail.com

<7면에서 계속>

그 이유는 주관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기에 선악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보수적 교리의 논리적 결과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란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주의가 아니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얻는 진정한 선택으로서의 자유라고 설명한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인간적인 자유를 누리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우리의 판단에 '아디아포라'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그렇지 않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 놓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예배시간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침묵한다. 그러나 예배에 임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바른 마음자세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주일에 교회에 가기 위해 버스표를 구매할 수 있으나에 대해 침묵한다. 그러나 성경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해 논쟁하던 바리새인들

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

바울은 '아디아포라'를 언급하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자체가 보다, 성숙한 성도라면 연약한 성도들을 의식하여 그들이 신앙적으로 해를 받지 않도록 섬세한 배려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랑교회에서 '아디아포라'로 여겨지는 것이 한국이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절대적인 금기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과거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금기로 여겨지던 것들이 개방되고 다양해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아디아포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신앙을 시작할 때 '아디아포라'로 간주하였던 것이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금기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초문제를 포함하여 '아디아포라'를 논하기 전에 성도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이 항상 생명과 같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교훈이다. 바로 코람데오(Coram Deo), 즉 하나님을 의식하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위하여 통전적인 삶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며, 주 안에서 자유로운 양심을 지닐 때 '아디아포라'의 세분화된 내용들이 거침돌이 아니라 기록한 도구가 될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운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소식

웨이스선교회

웨이스선교회(회장 전희수 목사 사무총장 권케더린 목사)는 중점 사역인 세계가정 기도운동 및 선교사역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줌을 통해 각 나라 선교사들과 만나 선교소식과 코로나19상황을 나눈 후 지난 2개월간 사역 현황과 코로나19상황을 전했다.

웨이스선교회는 2차 줌 화상모임은 12월 초로 선교사와 후원이 사들과 함께 대면하며 한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탄자니아 정현 선교사 온갖 잠신과 우상숭배 인신매매까지 있는 탄자니아에 가정기도사역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에서 영적으로 개화되지 못한 기구한 여성들의 상흔을 치료하고 있다.

9월 기도회 정현 선교사의 설교는 딤후 3장 1절-6절 본문으로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 시키라고 전했다.

특별히 간증의 시간에 "에스터의 남편이 기도회에 참석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가정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2년 동안 남편의 외도로 별거하고 이혼직전에 2년 동안 기도했던 열매를 맺게 됨을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탄자니아 어머니들의 기도는 한 곳에 앉거나 서서 하지 않고 영적인 최전방에서 생사를 가리는 갈급함으로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에 모여 기도할 수 없는 기간에는 옥수수가루 양식과 생필품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

엘살바도르 황은숙 선교사 황은숙 선교사 사회로 글로리아 찬양단의 찬양후 황영진 목사가 설교했다. 합심중보기도는 △가정회복을 위하여(남편, 자녀를 위해) △열방

에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웨이스선교회 발전을 위하여 현지어미 니들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간 대면해서 모여 기도하지 못함에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팬데믹 이후 수개월동안 황 선교사 부부는 마스크도 직접 만들어 가정마다 보급하며 양식과 생활용품을 코로나바이러스도 피하지 않고 굶주려 고통당하는 가정마다 방문하여 전하는 사역에 전념했다.

엘살바도르2 조사라 선교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새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성전바닥 공사만 끝나면 새성전에서 예배와 기도모임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한 가정에서 소수가 모여 예배와 기도회를 하고 있다. 그동안 조 선교사부부는 마스크를 직접 만들고 생필품을 가정마다 전달하는 사역을 해왔다.

과테말라 박운정 선교사 대면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한



엘살바도르 황영진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가정(까롤리아 가정)이 오픈하여 소수의 어머니들이 가정회복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박 선교사부부는 함께 사역하는 팀원들이 코로나확진자로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하며 생필품을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파라과이 이명화 선교사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상태이며 하루에 확진자 800-99명이며 대면예배는 급하고 온라인예배로 진행되고 있다.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조심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국립병원으로 가야하는데 환자들 많이 개인병원으로 가야하는 형편이다. 개인병원 중환자실 1일 비용은 미화 2000달러인고로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이다.

기도모임은 가정마다 선교사님 부부가 방문하여 기도하며 마스크

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네팔 새빛들이 선교사 코로나19상황은 심각한 상태로 대면모임을 할 수 없고 줌으로 기도회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선교사부부도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만든 마스크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에 염소 두 마리씩(한마리 150달러)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역을 돕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향한 사랑의 사역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 신동숙 원장 코로나바이러스 기간에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수양관을 선물로 주셨다. 오래 방치된 곳이기 수리하기에 힘든 가운데서도 예쁘고 깨끗하게 수양관이 단장되었다.

신동숙 원장 김삼수 목사 부부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깊은 기도의 열매로 푸른하늘수양관이 탄생되었다. 이제 그곳에서 부러

짓는 기도가 차세대와 가정을 회복하는 성령의 기도성산이 될 것을 소망한다. 또한 웨이스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 줌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와이유인디안 부족마을과 베네수엘라 난민 지역을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역을 했다. 외이유인디안부족 마을은 김 선교사의 사역지인 아구아피다에서 먼거리 일뿐 아니라 마실 물이 부족한 낙후된 곳이다.

그동안 오디오로 진행되었던 기도회는 10명 정도의 대면예배와 기도회도 9월 10월에는 성찬예배로 진행하며 그동안 대면하지 못한 갈급함을 성찬을 통해 은혜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선교지인 아구아피다 지역의 가정을 방문하며 계속 생필품을 전했다. (웨이스선교회)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나잇값은 하고 사는가?

세월이 약이 되는 것은 젊었을 때 이야기다. 나이가 들면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작고 큰 잘못을 돌이킬 시간도 없다. 다시 말해 나잇값을 하기가 너무 늦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후회도 되돌림도 바꿈도 젊어서 해야만 된다.

옆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아는 것이 지혜이건만 사람은 욕심으로 인해 나잇값과도 같은 지혜마저 놓쳐버리기 일쑤다. 나뉘고도 그것이 기억 자인 것을 모르는 것은 지식의 문제이지만 제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은 미련함이 문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질문명은 이미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사람다운 즉 인성(人性)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었거나 파괴되어버렸다. 도둑은 제 발이 저린다는 속담이 있다. 저지른 잘못이 드러날까 봐 얼굴이 벌게 지면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 그것을 맹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고 했다. 비록 도둑일지언정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그래서 인지상정이 남아 있다는 증표라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뜻하는 치(恥)는 귀(耳)와 마음 심(心)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짓말과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할 때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 귀가 붉어지게 되는데 이는 현대과학으로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귀가 붉어지는 않는 것은 생리기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문제는 이런 생리기능에 이상이 지닌 사람들 그 중에도 소위 위정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방귀 권 높이 성을 내거나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드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상실한, 어찌 보면 인간성을 잃어버린 불쌍한 군상들이 아닐 수 없다.

나잇값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리 값 혹은 직책 값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직책이 높아 남이 문을 열어주는 차를 타고 내리면서 그에 대해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거나 부끄러운 기색조차 없는 이들이 장관으로 행세하고 자칭 지도층이라 으스스한다. 이런 위정자들이 많게 되면 난세가 되고 만다. 어쩌면 코로나 19(COVID 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판데믹보다 수오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특세가 더 큰 위기며 세상의 불행일지 모른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필요한 그래서 주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누구일까?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나는 심었고 아보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는 절대 기준처럼 종말의 징조는 사람의 몫이 아니기에 사람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잘못에 대해 '제가 그랬어요!'하며 일러바치듯 네 탓이라 샅대질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나잇값도 자릿값도 아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실 만큼 쓰디쓴 잔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단 한 마디의 자기변명도 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진실은 변명이나 변호로 밝혀지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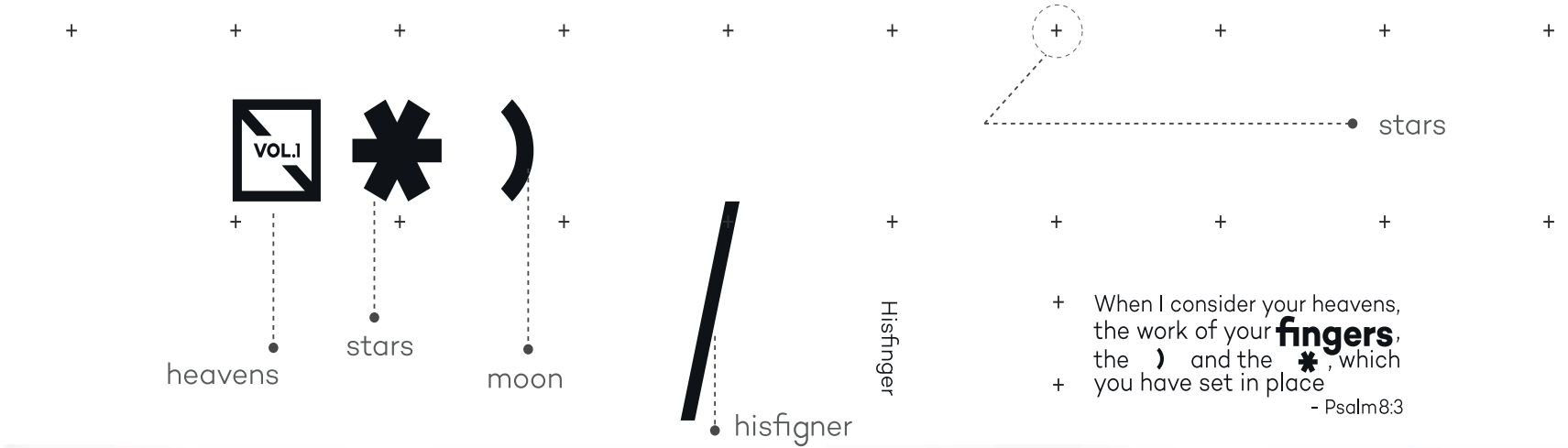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남의 잘못에는 입에 거품을 뿜으며 손가락 총을 쏘아대지만 정작 자신의 불법에는 온갖 변명으로 포장하는 힘 있는 자들의 행태가 접미가정이다. 쿡구멍이 두 개라서 숨을 쉰다는 기가 막히는 사연들이 여기저기에 넘쳐난다. 배에서 실족하여 북한수역으로 휩쓸려간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자 진위를 파악하기도 전에 월북했다는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정권, 아들의 휴가의혹이 석연치 않게 무혐의가 되자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형사 고발한 법무장관은 과연 직책 값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죄로 관영해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차피 북미전과 같다. 이전 정권은 비리투성이고 이 정권은 깨끗하니 적폐청산이 정당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권이 잘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이 단 하나도 없는 세상인지라 네 탓만을 외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진정한 나잇값은 관공과 이해일 것이다. 특별히 힘 있는 자들의 배려와 양보는 그래서 미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듯 힘 있는 자들의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은 가장 아름다운 나잇값일 것이다. 이런 나잇값이 많아질 때 세상은 그나마 살만해지지 않을 까 싶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나잇값이 절대적이다.

hanmackim@hanmail.net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팬데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7) 나눔선교회

대표 한영호 목사

팬데믹 상황 출입 없어 더 안정적으로 사역

팬데믹 가운데서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들을 탐방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를 방문했다. 나눔선교회는 마약, 알코올, 도박, 청소년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삼

을 회복시키기 위한 선교기관이다. 나쁜 습관의 중독자들과 가족 구성원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6년 시작돼 24년 동안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중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순간 자신의 포지션을 잊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날로 모든 행사와 초청을 거부했다.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지금 뭐하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목사가 된 건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책도 더 쓸 계획이었으나 스탑했다. 자칫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게 정말 복음인지? 자신을 나타내는 건지' 두려웠고, 가는 곳마다 분에 넘친 대우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 사역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다.

“미국에 온지 48년 됐습니다. 제 자신이 마약중독자로 20년을 살았지요. 사고도 많이 쳤지요. 저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약을 팔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죠. '신을 믿으면서 왜 약을 하나' 하는 생각도 했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나는 이 세상이 이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내 스스로에게 속아 살았음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입을 여는 한영호 목사.

자신이 경험했던 어둠의 긴 시간이 있었기에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한 목사는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 있는 식구들과 같이 365일 24시간 함께 지내며 동무가 되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10여 년 전만 해도 모든 마스크들과 매거진들의 조명이 한 목사를 향했다. 한국 방송국에서도 초청이 쇄도했고, 한국 큰 교회의 집회도 이어졌다. 자신의 간증집도 두 권을 발행했다. 나눔카페가 생겨나고 회원들이 늘어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게 아

한 목사하는 “저는 매일 아침 기도제목이 '오늘도 나에게 속지 않는 하루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육신을 갖고 있기에 나 자신을 다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를 부

아픈 이들과 동행...치유는 주님이

이 선교원에는 마약, 알콜, 도박 중독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까지 들어와 있다. 한 목사 자신은 이들을 치유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 치유하기 위

물었다. “이 사역을 하면 서 코트를 4000번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한영호 목사



나눔선교회 회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중독, 범죄, 탈선 등 말씀으로 전인교육... 현재 47명 함께 속식 '나에게 속지 않는 하루 되도록' 매일 기도하며 24년 사역 중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들과 함께 동행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름을 '나눔'으로 했는데 많은 이들이 선교회를 잘 못 이해하는 이들이 많으며 “저는 이들과 함께 동행 할 뿐이고 치유는 오직 하나님 한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1/3은 코트에서 감옥 대신 이리로 데리고 온 식구이고, 1/3은 부모가, 1/3은 본인이 원해서 온 식구들입니다. 지금 현재 47명이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선교하려는 목적 이전엔 그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외로운 사역입니다. 24시간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이야말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섬기면서도 교회사운 교회를 섬기

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라며 외롭고 힘든 사역임을 내비쳤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나쁜 습관(각종 중독, 범죄, 탈선 등)의 문제점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규칙적인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개인 상담, 그룹 상담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자신감과 가능성을 심어준다.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도 협력하고 있으며 전인교육을 위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서적 교육', '특별활동을 통한 중독 대체 교육', '도덕, 윤리, 인격 교육', '심신 단련 교육', '주체성, 자존감, 역사관을 고취시키고', '봉사활동'에 동참하게 한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교육과 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이 선교원에 들어오기 원하는 신청자는 너무나 많다고 한다. 그만큼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 그러나 이 사역이 쉽지 않은 사역이기에 여러 단계를 있었으나 지금은 다 문을 닫고 나눔 선교회만 남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역 동참자 기다려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없느냐고 묻자,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팬데믹으로 선교회는 외부사람

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이 사역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들어와야 할 수 있는 사역인데 앞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이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꼭 필요한 사역인데 과연 이것을 누가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이 사역을 위한 많은 섬김의 종들이 세워지기 원한다는 바람을 털어냈다.

이 사역을 이어나가며 재정적인 것도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오히려 선교회 축복이라고 한다. 어렵기 때문에 서로 도우려고 애 쓴다는 것.

“물질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부족한 축복이지요. 결코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운데 24년을 섬길 수 있음이 축복이지요. 바램이라면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소외당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볼수록 더욱 부정적 이야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힘을 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돼주시시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끝으로 한 목사는 가족에게 대한 미안함을 내비쳤다. 젊은 시절은 자신의 방탕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부터는 선교회 일로 가정과 식구들을 살피지 못한 마음 때문이다.

그 중 한 예로, 아들이 사고가 나고, 선교회식구가 사고가 났을 때 아들에게 가지 못하고 선교회 식구를 찾았었던 일이 아들에게는 상처로 남아있다고 귀뜸을 하며 가정에 대해 부족함이 많고 고백한다.

한 목사는 3남1녀를 두었으며 2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 나눔선교회에 관한 자세한 것은 www.nanoomla.com를 참조하고 (213)389-99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행하실 기이한 일을 소망하며...”

C&MA한인총회 제37차 정기총회, 정재호 감독 선출

C&MA한인총회 제 37차 정기총회가 10월 6일 뉴저지만나 교회를 본부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행하실 기이한 일을 소망하며, 성결의 능력으로”라는 주제로 총 회원 92명 중 61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이번 정기총회의 주요 초점인 감독 선출에서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된 정재호 목사(워싱턴 제일교회)가 85%의 지지를 받아 4년 임기 감독에 당선됐다.

정재호牧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 미국으로 이민, 조지아텍에서 박사학위를



C&MA한인총회 제37차 정기총회 현장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받고 1992년 인하대 전자공학 교수로 다시 한국으로 나갔

다가 온누리교회를 출석하며 BEE 사역을 했으며 장신대 신

대원을 졸업했다.

정재호 목사는 소견발표를 통해 “소통”을 강조하며 한인총회의 화합과 하나됨, 교단본부와의 소통으로 한인총회의 자리매김 확장 등을 말했다.

정 감독은 한인교회 위기의 돌파 방법으로 “잘하는 것을 더 잘함”을 강조하며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주도적으로 선교사역을 주력해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제는 선교와 목회는 구별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은 △서기 김바울 목사, △부서기 하늘 목사, △회계 김충명 목사, △부회계 김신울 목사, △감사 원호 목사, 오창화 장로. 또 △실행위원으로 이종현 목사 등 9명을 선출했다.

한편 제38차 정기총회는 2021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가주웨슬리교회에서 열린다. (정리: 유원정 기자)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영상기도회) Multi-Ethnic Virtual Prayer Gathering

COVID 종식, 11월의 선거, 부흥과 회복

“ 지금은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COVID-19극복을 위하여! 11월에 있는 각 선거를 위하여! 미국 건국정신인 청교도신앙 회복을 위하여!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밤 7:30~9:30

현장 기도회 : 은혜한인교회

중계 : 미주복음방송, CTS America, 은혜한인교회GKC TV, YouTube :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16일(금) 밤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표대회장 :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 강순영 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 이성우 목사(213-675-6493)
사무총장 : 강태광 목사(323-578-7933)